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한국어 양보의 표현 방책과 의미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이 순 욱

한국어 양보의 표현 방책과 의미

지도교수 박 진 호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이 순 욱

OOO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8월

위 원 장 _____ 전영철 (인)

부위원장 _____ 문숙영 (인)

위 원 _____ 박진호 (인)

국문초록

본고는 범언어적으로 확인되는 양보의 세 가지 표현 방식에 주목하여 한국어 양보의 의미를 기술하였다. 양보는 비관여성을 핵심 의미로 가진다. 즉 양보는 어떤 사태/지식이 다른 사태/지식 혹은 화행에 관여한다는 기대를 부정한다. 따라서 양보의 의미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기대의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본고는 기대가 가지는 어떤 의미가 양보에 의해서 부정되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보를 표현하는 세 가지 방식의 의미를 점검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대가 <A이면 B>의 조건 형식으로 표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A이면 B>라는 조건 형식은 A가 B의 충분조건임을 의미하는 동시에 B가 A의 필요조건임을 의미한다. A가 B의 충분조건이라는 의미는 ‘A일 때 B이지 않을 수 없음’으로 풀어 쓸 수 있고 B가 A의 필요조건이라는 의미는 ‘오직 B일 때만이 A’로 풀어 쓸 수 있다. 제2장에서는 양보문의 사실성과 표현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가 반드시 사실로 해석되는 종류의 양보문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양보문은 사실적 양보를 나타낸다. 양보문이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가 사실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전달하는 바가 없을 때가 있다. 이러한 종류의 양보문은 조건적 양보를 나타낸다. 조건적 양보는 범언어적으로 주로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된다. 조건적 양보는 한국어의 ‘도’와 같은 첨가 초점사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조건적 양보는 이접 연결사에 의해서 표현되기도 한다. 변수값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무관함을 나타내는 자유 선택사 또한 조건적 양보의 표현에 쓰인다. 세 가지 방식은 주로 조건적 양보를 표현하는 데 쓰이지만 사실적 양보를 표현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제3장에서는 첨가 초점사 양보를 알아보았다. 첨가 초점사 방식에 의한 조건적 양보에서는 척도성과 총망라성이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첨가 초점사가 쓰였음에도 척도성과 총망라성이 없는 조건적 양보문이 확인된다. 본고에서는 제2장에서 확인한 기대의 의미를 바탕으로 척도 함축이 없는 양보문이 조건적 양보문의 기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문장임을 논증하였다. 한편 척도적인 첨가 초점사

의 초점이 끝값인지 아니면 단순히 척도 함축을 발생시킬 수 있는 척도상의 존재자인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본고에서는 맥락적인 끝값의 개념이 이러한 견해 차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맥락적인 끝값의 존재를 논증하였다. 즉 척도적인 첨가 초점사의 초점은 끝값임을 논증하였다.

제4장은 이접 방식에 의한 양보를 다룬다. 이접 연결사에 의해 A와 not-A가 연결되는 것과 유사하게 첨가 초점사에 의해 A와 not-A가 연결될 수도 있다. 때문에 첨가 초점사에 의해 A와 not-A가 연결된 것들을 첨가 초점사 방식에 의한 양보가 아니라 이접 방식에 의한 양보와 같은 부류로 보는 견해가 있다. 본고에서는 제3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A어도 not-A어도’와 같은 사례들은 첨가 초점사 방식에 의한 양보의 한 종류임을 주장하였다. 한편 이접 방식에 의한 양보 또한 총망라성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접 연결사가 쓰인 양보문이 가지는 총망라성은 기대가 가지는 척도를 부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보았다.

제5장에서는 자유 선택사 방식에 의한 양보를 알아보았다. 자유 선택사 방식에 의한 양보는 반복적 구문과 단일사태 구문으로 나뉜다. 반복적 구문에서는 참여자, 시간, 공간이 자유 선택의 대상이 되어 양보의 의미를 표현한다. 단일사태 구문은 사태의 회수, 지속 시간, 강도가 자유 선택의 대상이 되어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했음을 나타낸다. 많은 언어에서 자유 선택사가 쓰인 양보문의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의 사실성은 서법에 의해서만 구별된다. 한국어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주요어 : 양보(concessive), 비관여성(irrelevance), 조건적 양보(conditional concession), 양보적 조건(conditional concessive), 척도(scalar)

학 번 : 2015-22438

목 차

1. 서론	1
1.1. 연구 목적 및 연구 대상	1
1.2. 선행 연구	2
1.3. 논의의 구성	5
2. 기본적인 논의	6
2.1. 양보의 정의와 종류	6
2.2. 양보가 부정하는 대상과 대상의 의미	11
2.2.1. 양보가 부정하는 대상	12
2.2.2. 양보가 부정하는 의미	20
2.3. 양보문의 사실성	21
2.4. 양보를 표현하는 세 가지 방책	23
2.5. 요약	25
3. 첨가 초점사 양보	27
3.1. 첨가 초점사에 의해 형성되는 양보 표지	27
3.2. 첨가 초점사 양보의 의미	30
3.2.1. 첨가 초점사 양보문의 사실성	31
3.2.2. 첨가 초점사 양보의 의미 점검	38
3.2.3. 첨가 초점사의 역할	41
3.2.4. 맥락적인 끝값	45
3.3. 요약	48
4. 이접 양보	50
4.1. 이접 연결사에 의해 형성되는 양보 표지	50

4.2. 이접 양보의 의미	56
4.2.1. 이접 양보문의 사실성	56
4.2.2. 이접 양보의 의미 점검	57
4.3. 요약	63
5. 자유 선택사 양보	64
5.1. 자유 선택사에 의해 형성되는 양보 표지	64
5.2. 자유 선택사 양보의 의미	68
5.2.1. 자유 선택사 양보문의 사실성	69
5.2.2. 자유 선택사 양보의 의미 점검	70
5.3. 요약	71
6. 결론	72
참고문헌	74
Abstract	79

표 목 차

[표 1]	35
-------------	----

그 립 목 차

[그림 1]	8
[그림 2]	29
[그림 3]	39
[그림 4]	61
[그림 5]	62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연구 대상

양보란 하나의 사태/지식이 다른 사태/지식 혹은 화행에 관여한다는 기대를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와 같이 ‘밥을 먹음’이 ‘배가 부름’에 관여한다는 기대가 있을 때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았다.’와 같은 문장으로 기대를 부정하는 것을 양보라고 한다. 양보는 기대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양보의 의미는 부정되는 기대와 매우 밀접하다. 따라서 본고의 첫 번째 목적은 양보가 부정하는 기대란 무엇인지, 기대의 의미는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있다.

양보는 사태가 사실임을 나타내는지, 사태가 사실인지에 대해서 중립적인지에 따라 사실적 양보(factual concessive)와 조건적 양보(conditional concessive)로 나뉜다. 조건적 양보를 표현하는 세 가지 주요 방식이 범언어적으로 관찰되었다. 첨가 초점사(additive particle)를 이용하여 조건적 양보를 표현할 수도 있고, 이접 연결사를 이용하여 조건적 양보를 표현할 수도 있다. 영어의 ‘whatever’와 같은 자유 선택사(free-choice quantifier)에 의해서도 조건적 양보는 표현될 수 있다. 세 방식은 주로 조건적 양보를 표현할 때 쓰이지만 사실적 양보를 표현할 때 쓰이기도 한다. 본고의 두 번째 목적은 한국어에서는 어떤 개별 표현들이 각 방식을 담당하는지 알아본 후 개별 표현들이 사실적 양보를 나타내는지, 조건적 양보를 나타내는지 확인하는 것에 있다.

본고의 세 번째 목적은 세 방식의 의미 기술을 점검하는 것에 있다. 언급한 세 가지 방식에 의해 조건적 양보가 표현될 때 양보문은 총망라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령 ‘하늘이 무너져도 영희와 헤어지지 않겠다.’와 같은 문장에서 양보절은 모든 사태를 망라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조건적 양보문 중에는 총망라성을 가지지 않는 문장들이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방식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고의 목적은 첫째 양보가 부정하는 기대를 알아보는 것이다. 둘째 양보를 표현하는 세 가지 주요 방책이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본고의 세 번째 목적은 각 방책의 의미 기술을 점검하는 것에 있다.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언급한 바와 같이 양보의 의미는 기대의 의미와 밀접하므로 본고가 연구할 대상은 양보에 의해 부정되는 기대이다. 또한 본고는 각 방책을 담당하는 개별 표현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한국어에서 첨가 초점사 방책을 담당하는 것은 ‘도’ 결합형 연결어미이다. 이접 방책은 이접 연결사 ‘-거나’ 등이 담당하고 있다. 자유 선택사는 주로 비한정대명사와 ‘도’ 결합형 연결어미에 의해서 형성되거나 비한정대명사와 이접 연결사에 의해서 형성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개별 표현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양보의 의미에 대한 논의들은 사실적 양보 표지와 조건적 양보 표지의 구별에 대한 논의, 개별 표현의 의미 기술에 대한 논의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양보 표지가 사실적 양보 혹은 조건적 양보를 배타적으로 나타낸다고 보는 논의가 있는 한편 한국어에서는 사실적 양보와 조건적 양보가 구별되지 않는다고 보는 논의가 있다.¹⁾ 조건적 양보 표지와 사실적 양보 표지를 구별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어도’와 ‘-더라도’가 조건적 양보를 나타낸다는 점은 이기동(1977), 임지룡(1982), 윤평현(1985), 이은경(1990, 1996), 임동훈(2009), 백낙천(2011), 박진호(2012)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을지라도’가 조건적 양보를 나타낸다는 점은 이기동(1977), 윤평현(1985), 백낙천(2011), 박진호(2012)에서 확인되고 있다. ‘-은들’은 윤평현(1985), 이은경(1990, 1996)에서 조건적 양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술되었다. 윤평현(1985)에서는 ‘-을지언정’, ‘-을망정’도 조건적

1) 사실적 양보를 지시할 때 ‘화행론적 대조’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조건적 양보는 ‘양보’로 불리기도 한다.

양보를 나타낸다고 본다. 박진호(2012)에서는 ‘-었던들’이 반사실적 조건과 반사실적 조건적 양보를 나타내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어도’는 조건적 양보뿐만 아니라 사실적 양보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한국어에서는 사실적 양보와 조건적 양보의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연구가 있다. 서정섭(1991), 박승윤(2007), 함병호(2013)에서는 사실적 양보와 조건적 양보를 구별하지 않는다. 서정섭(1991), 함병호(2013)에서는 ‘-어도’, ‘-더라도’, ‘-을지라도’ 등이 쓰인 문장의 양보절은 사실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가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하므로 한국어에서는 조건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즉 서정섭(1991), 함병호(2013)에서는 한국어에서 조건적 양보 표지라고 부를만한 것이 있다면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가 항상 가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보인다. 박승윤(2007)에서는 한국어의 모든 양보 표현은 기본적으로 조건적이며,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가 사실적인지 가정적인지는 전적으로 맥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²⁾ 박진회(2011)에서는 각각의 표현들이 쓰인 문장에서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가 사실로 해석되는지 가정적으로 해석되는지를 관찰하였다. ‘-어도’, ‘-더라도’, ‘-을지라도’가 이끄는 절이 지시하는 사태는 사실인 경우도 있고 가정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개별 표현들의 의미 차이에 대해 다룬 연구로는 채연강(1985), 최재희(1989), 서정섭(1991)이 있다. 대개 다음과 같은 점은 공통되게 기술하고 있다. ‘-어도’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더라도’, ‘-을지라도’, ‘-은들’, ‘-을망정’, ‘-을지언정’은 ‘-어도’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갖거나 보다 가정적인 의미가 강한 것으로 기술된다. 서정섭(1991)은 양보만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 표현들을 폭넓게 다룬 연구이다. 화자의 양태를 중심으로 개별 표현들의 의미를 세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특징적인 연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신지연(2004)에서는 대조, 사실적 양보, 조건적 양보의 각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된 표현들이 실제

2) 박승윤(2007)에서는 주로 ‘-어도’가 쓰인 양보문들을 다룬다. 한국어는 맥락에 의해서 사실적 양보와 조건적 양보가 결정된다는 박승윤(2007)의 언급은 ‘-은테도’, ‘-음에도’와 같은 표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로는 잘 구별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어도’, ‘-더라도’, ‘-을지라도’가 대조에도 쓰인다고 판단한 점이 특징적이다. 가령 ‘철수는 키가 크더라도 영화는 키가 작을 것이다(신지연 2004: 85).’에서와 같이 반의어의 성격을 가지는 어휘가 문장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때 ‘-어도’, ‘-더라도’, ‘-을지라도’가 쓰인 문장은 양보의 의미가 아니라 ‘첫째는 아들이지만 둘째는 딸이다.’와 같은 대조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양보 표현의 사전 기술에 대해 다룬 연구도 있었다. 우상민(2008)에서는 연결어미뿐만 아니라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 부사, 관용적 표현을 대상으로 하여 각 표현들이 사전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각 표현이 가지는 문법적 제약을 추가한 보완책을 제안하고 있다.

윤평현(1985), 이은경(1990, 1996) 등에서 이접 연결사가 양보를 표현할 때 쓰일 수 있다는 점, 비한정대명사가 양보문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으나 이접과 비한정대명사에 의해서 표현되는 양보들은 그간 비교적 주목을 받지 못했다. 대부분의 연구는 ‘도’ 결합형 연결어미나 ‘-지만’, ‘-으나’에 의해 나타나는 양보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양보의 의미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사실적 양보와 조건적 양보가 구별되는지 이견이 있다. 개별 표현들의 의미에 대한 연구는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대개 ‘-어도’를 기본적인 독립적인 표현으로 보고 다른 표현들은 보다 양태적인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대조와 양보의 범주 구별에 문제가 지적된 적이 있다. ‘도’ 결합형 연결어미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본고에서는 대조와 양보의 범주 구별과 개별적인 표현들의 의미 차이는 다루지 않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대조와 양보 두 범주를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고, 어떤 표현이 양보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면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개별 표현들의 의미 차이는 충분한 연구가 축적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양보문이 가지는 사실성에 대해서 각 장에서 언급할 것이다. 그리고 ‘도’ 결합형 연결어미 외에 이접 연결사나 비한정대명사에 의해 표현되는 양보들도 다루고자 한다.

1.3. 논의의 구성

제2장에서는 양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한 후 양보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대를 알아보고자 한다. 기대와 관련해서는 기대가 어떤 종류의 진술인지 확인한 후 기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보이고자 한다. 또한 사실성에 따라 양보가 구별된다는 것과 양보를 표현하는 세 가지 방식을 알아본다.

제3장에서는 첨가 초점사 방식에 의한 양보를 다룬다. 한국어에서는 어떠한 표현들이 첨가 초점사 방식에 의한 양보를 담당하고 있는지 언급한 후, 개별 표현들이 사실적 양보를 나타내는지 조건적 양보를 나타내는지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제2장에서 확인한 기대의 의미와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언어 현상을 바탕으로 첨가 초점사 방식의 의미를 점검할 것이다. 또한 첨가 초점사가 쓰인 양보문이 척도적인 의미를 가질 때 첨가 초점사의 초점은 언제나 끝값이라는 것을 논증한다.

제4장에서는 이접 방식에 의한 양보를 다룬다. 첨가 초점사가 쓰였음에도 이접 연결사가 쓰인 것과 그 모습이 유사한 사례들이 있다. 제3장에서 논의한 근거로 이러한 사례들이 이접 방식에 의한 양보가 아니라 첨가 초점사 방식에 의한 양보임을 주장할 것이다. 또한 이접 방식에 의한 양보의 의미 중에서 총망라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이접 연결사가 쓰인 양보문은 마치 총망라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총망라성이 이접 연결사가 쓰인 양보문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부정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것임을 논증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자유 선택사 방식에 의한 양보를 알아볼 것이다. 자유 선택사 방식에 의한 양보의 종류, 한국어에서 자유 선택사 방식에 의한 양보를 담당하는 표현들, 다른 방식에 의한 양보와는 달리 사실성이 오직 서법에 의해서만 구별된다는 점 등을 이야기할 것이다.

2. 기본적 논의

양보는 기대를 부정한다. 따라서 기대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은 양보의 의미를 정확히 기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제2장에서는 양보가 부정하는 기대를 어떻게 표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알아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양보에 의해 부정되는 기대의 의미는 무엇인지 확인할 것이다. 또한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가 사실임을 나타내는 사실적 양보와 사태의 사실성에 대해 중립적인 조건적 양보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그 후에 양보를 표현하는 세 가지 방식을 알아본다.

2.1. 양보의 정의와 종류

양보의 핵심적인 의미는 비관여성이다(박재연 2011: 179-183). 이때 비관여성은 어떤 사태/지식과 다른 사태/지식 간의 비관여성일 수도 있고, 어떤 사태/지식과 화행 간의 비관여성일 수도 있다.

- (1) 가. 눈이 와도 차가 막히지 않았다.
나. 불이 켜져 있지만 그 집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가)는 ‘눈이 옴’이라는 사태가 ‘차가 막힘’이라는 사태의 발생에 비관여적임을 나타낸다. (1나)는 ‘불이 켜져 있음’이라는 사태가 ‘그 집에 누군가 있음’이라는 지식을 도출함에 있어 비관여적임을 나타낸다. (1다)에서는 ‘질문이 청자에게 실례가 됨’이 질문을 하지 않는 것에 비관여적임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비관여성을 나타내는 양보는 어떤 사태/지식이 다른 사태/지식 혹은 화행에 관여적이라는 기대를 부정한다. 기대는 <A이면 B>와

같은 조건 형식으로 표상된다.

(2) 가. (기대) 열심히 공부하면(A)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B). <A이면 B>
나. 열심히 공부해도(A) 시험에 떨어질 것이다(not-B).

(3) 가. (기대) 할 말이 아니면(A) 하지 않는다(B). <A이면 B>
나. 얻어먹는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A) 솔직히 이 집 음식 별로네
(not-B).

<A이면 B>의 조건 형식을 가지는 (2가)는 ‘열심히 공부함’이 ‘시험에 합격함’에 관여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때의 관여성은 (2나)와 같은 양보문에 의해 부정된다. 어떤 사태/지식이 화행에 비관여적이라는 것 또한 <A이면 B>의 조건 형식으로 표상되는 기대를 부정한다. 가령 (3나)는 ‘할 말이 아님’이 ‘이 집 음식이 맛있지 않다는 것을 말함’이라는 화행을 하지 않는 것에 비관여적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때 (3나)가 부정하는 기대는 (3가)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양보가 흔히 ‘기대의 부정’이라고 정의되는 것은 (2-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양보는 비관여성을 나타내기, 관여성을 나타내는 기대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기대를 부정하는 것이 모두 양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기대를 부정하는 표현 중에서 비관여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양보라고 할 수 없다.

(4) 가. (기대) 돈이 많으면(A) 행복할 것이다(B). <A이면 B>
나. 돈이 많아도(A)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not-B).
다. 돈이 많으면(A)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not-B). <A이면 not-B>

(4가)는 ‘돈이 많음’이 ‘행복함’에 관여적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양보문 (4나)는 기대의 ‘돈이 많음’이 가지는 ‘행복함’에 대한 관여성을 부정한다. 기대가 <A이면 B>로 표상될 때 (4다)와 같이 <A이면 not-B>의 형식을 가지는 문장은 양보를 표현한다고 할 수 없다. 물론 (4다)는 (4가)를 부정하지만 (4나)와는 달리 (4다)는 비관여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4다)

는 (4가)가 나타내는 관여성을 부정하는 한편 다른 방식으로 관여성을 나타낸다. 즉 ‘돈이 많음’이 ‘행복하지 않음’에 관여적임을 나타낸다.

양보문에 어떤 것을 언어화하는지에 따라 기대는 두 가지 방법으로 부정될 수 있다. 하나는 직접부정(direct denial)이라고 불리고, 다른 하나는 간접부정(indirect denial)이라 불린다.³⁾

Rudolf(1996: 394)의 그림은 양보문의 각 절에 어떤 것들이 언어화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Rudolf(1996)에 따르면 양보에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의 연쇄가 존재한다. 하나는 A와 그것이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결과/결론인 B의 연쇄이다. 즉 ‘ $A \rightarrow B$ ’의 연쇄이다. 다른 하나는 A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not-B와 그것을 발생시킨 원인/이유인 C의 연쇄이다. 즉 ‘ $C \rightarrow \text{not-B}$ ’의 연쇄이다.⁴⁾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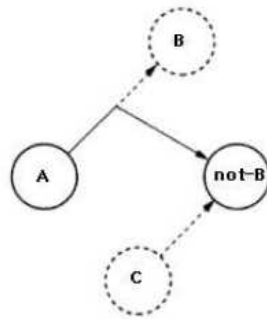


그림1. 양보가 전제하는 두 가지 연쇄.

직접부정의 양보문에서는 그림1의 A와 not-B가 각각 양보절과 주절에

3) ‘직접부정(direct denial)’이라는 용어 대신에 ‘기대부정(denial of expectation)’, ‘표준적 양보(standard concessive)’ 등이 쓰이기도 하고 간접부정을 나타내는 용어로는 ‘양보적 반대(Concessive opposition)’, ‘수사적 양보(Rhetorical concessive)’ 등이 쓰이기도 한다(Mizuno 2008: 42). 본고에서는 ‘직접부정’과 ‘간접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두 용어가 두 양보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준다.

4) Rudolf(1996: 394)에서는 본고에서 ‘B’라고 한 것을 ‘C’라고 표기하였고, 본고에서 ‘not-B’라고 한 것을 ‘B’라고 표기하였고, 본고에서 ‘C’라고 한 것을 ‘D’라고 표기하였다. 기술의 편의를 위해 본고의 표기를 기준으로 바꾸었다. 이후 언급되는 다른 연구에서 사용하는 표기들 또한 본고의 표기를 기준으로 하여 바뀌어서 쓰이고자 한다.

언어화된다. 지금까지 본 양보문들은 직접부정의 양보문에 해당한다.

- (5) 가. (기대) 철수는 날씨가 더우면(A) 땀을 흘릴 것이다(B). <A이면 B>
나. 철수는 날씨가 더워도(A) 땀을 흘리지 않는다(not-B).

기대 (5가)는 A와 그것이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인 B를 나타낸다. 즉 'A → B'의 연쇄를 나타낸다. 양보문 (5나)의 양보절에는 A가 언어화되어 있고 주절에는 A가 발생할 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not-B가 언어화되어 있다. 이때 주절에 not-B가 언어화된 양보문 (5나)는 'A → B'의 연쇄를 부정한다. 즉 <A이면 B>의 기대를 부정한다.

A가 복수의 요소로 구성될 때도 있다. 이때는 요소 중 어떤 것이든 양보절에 언어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6) 가. (기대) 영희는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A I) 내가 돈을 빌려주면(A II) 받을 것이다(B). <A I + A II이면 B>
나. 영희는 돈이 필요해도(A I) 받지 않을 것이다(not-B). 영희는 자존심이 세다.
다. 영희는 돈을 빌려줘도(A II) 받지 않을 것이다(not-B). 영희는 자존심이 세다.

(6가)와 같이 기대의 A가 둘 이상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을 때가 있다. 이 경우 (6나)와 같이 A I 이 양보절에 언어화될 수도 있고 A II가 양보절에 언어화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접부정의 양보문은 표면적으로는 기대를 부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간접부정의 양보문에서는 양보절과 주절이 서로 대립하는 결과/결론을 함의하며 주절이 함의하는 결과/결론은 양보절이 함의하는 결과/결론보다 우선권을 가진다(König 1988: 148, Azar 1997: 310, Xrakovskij 2012: 7).

- (7) 가. 영희가 도와주지 않더라도(A) 철수가 도와줄 거야(C). 그렇다면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다(not-B).

나. (기대?) 영희가 도와주지 않으면 철수가 도와주지 않는다.

다. 영희가 도와주지 않으면(A) 시간 내에 끝낼 수 없다(B).

라. 철수가 도와주면(C)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다(not-B).

양보문인 (7가)는 (7나)와 같은 기대를 부정하지 않는다. (7가)의 양보절은 (7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시간 내에 끝낼 수 없음’을 결론으로 함의하고 (7가)의 주절은 (7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음’이라는 함의를 가진다. 그리고 이때 (7가)와 같은 간접부정의 양보문에서는 주절이 가지는 결론이 우선된다. 그리하여 (7가)의 양보문은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음’을 함의하게 된다.

간접부정의 양보문은 표면적으로는 기대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부정의 양보문과는 이질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직접부정과 간접부정은 그림1의 연쇄를 공유하며 간접부정 또한 <A이면 B>의 기대를 부정한다. 간접부정의 양보문에서 양보절은 ‘ $A \rightarrow B$ ’의 연쇄를 나타내고 주절은 그와 대립하는 ‘ $C \rightarrow \text{not-B}$ ’의 연쇄를 나타낸다. 그런데 주절이 나타내는 연쇄가 우선되므로 결국 (7가)와 같은 양보문에서는 ‘ $A \rightarrow B$ ’의 연쇄가 부정된다. 즉 <A이면 B>의 기대가 부정된다.

요컨대 직접부정과 간접부정은 언어화하는 대상이 다를 뿐, 동일한 연쇄를 공유하며 어떤 방식으로 언어화되든 <A이면 B>로 표상되는 기대를 부정한다. 직접부정의 양보문과 간접부정의 양보문은 한 양보문의 서로 다른 모습이다.

직접부정의 양보문과 간접부정의 양보문이 한 양보문의 서로 다른 모습이라는 점은 두 종류의 양보문을 서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Azar(1997: 310-312)에서는 간접부정을 나타내는 양보문은 직접부정을 나타내는 양보문으로 바꿔 쓸 수 있음을 보였다.

(8) 가. True, his car has broken down, but there is always public transportation. (Azar 1997: 310)

나. True, his car had broken down, but since there is always public transportation, he could have gone to work. (Azar 1997: 312)

다. Although his car had broken down, he (nonetheless) could have

gone to work, because there is always public transportation.
(Azar 1997: 312)

간접부정인 (8가)에서는 연쇄 ‘차가 망가지면 일을 하러 갈 수 없음’과 연쇄 ‘대중교통이 있으면 일을 하러 갈 수 있음’이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은 직접부정인 (8나) 혹은 (8다)로 바꿔 쓸 수 있다(Azar 1977: 310-312).

양보문에 어느 요소가 언어화되는지는 대화상의 요구, 화자가 가진 정보의 한계와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 (9) 가. 대화자1: 철수는 왜 떨어진 거야? 시험 잘 봤다던데(A)? (기대: 시험을 잘 보면(A) 합격한다(B).)
나. 대화자2: 시험 점수가 높긴 했어도(A) 면접을 못 봤거든(C).

- (10) 집에 불어 켜져 있는데도(A) 어쩐 일인지 아무도 없었다(not-B).

(9가)에서와 같이 사태의 결과인 not-B(떨어짐)가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not-B를 야기한 원인을 알고자 할 때에는 A와 C가 각각 양보절과 주절에 언어화된 (9나)와 같은 간접부정의 양보문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반면 (10)에서처럼 화자가 not-B를 야기시킨 C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A와 not-B가 언어화된 직접부정의 양보문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2.2. 양보가 부정하는 대상과 대상의 의미

대개 기대는 조건 형식으로 표상된다. 그러나 조건 형식으로 표상되지 않는 진술이 기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만약 그러한 기대가 있다면 그 기대를 부정하는 양보는 조건 형식의 기대를 부정하는 양보와는 의미가 상이할 것이다. 양보란 기대의 부정이기 때문에 기대의 의미가

다르면 양보의 의미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2절에서는 모든 기대가 조건 형식으로 표상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기대는 조건 형식으로 표상될 수 있다는 점으로부터 모든 기대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의미를 자세히 드러내고자 한다.

2.2.1. 양보가 부정하는 대상

양보에 의해 부정되는 기대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될 수 있으나 기술되는 기대는 공통적으로 조건 형식을 가진다(König & Siemund 2000: 353, König 2006: 821).

(11) 가. Although it is raining, Fred is going for a walk. (König & Siemund 2000: 353)

나. People do not normally go out for a walk, If it's raining. (König & Siemund 2000: 353)

다. If it's raining, Fred does not normally go out for a walk. (König & Siemund 2000: 353)

König & Siemund(2000: 353)에서는 양보문 (11가)의 기대를 ‘일반적으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11나)로 기술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의 의미를 가지기는 하나 보다 구체적인 진술인 (11다)로 기술할 수도 있다고 한다. (11나), (11다) 모두 <A이면 B>의 조건 형식으로 표상된다.

Azar(1997: 306-307)에서는 ‘the more, the more’ 구문을 사용하여 기대를 기술한다.

(12) 가. Although it was very cold in the room, they did not turn on the heat. (Azar 1997: 306)

나. The more it is cold the more people tend to turn on the heater. (Azar 1997: 307)

Azar(1997: 306-307)에서는 양보문 (12가)가 가지는 기대를 (12나)와 같이 기술한다. 즉 어떤 사태의 변화가 다른 사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포함하여 기대를 기술한다. Azar(1997)에서 기술되는 기대는 표면적으로는 조건문이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술되는 기대 또한 <A이면 B>의 조건 형식으로 표상된다(König & Siemund 2000: 353). 즉 (12나)는 ‘추우면(A) 난로를 켜다(B).’로 큰 문제없이 바꿔 쓸 수 있다. (11나), (11다)에서는 ‘일반적으로’의 의미를 포함시켜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 Azar(1997)에서는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어떤 사태의 정도 변화에 따라 다른 사태의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Robaldo et al.(2010: 3594-3597)은 기대는 일반적인 규칙이 아닌 그것보다 구체적인 진술이라고 보았다.

(13) 가. Although John studied hard, he did not pass the exam. (Robaldo et al. 2010: 3597)

나. Studying hard causes passing exams. (Robaldo et al. 2010: 3597)

양보문 (13가)는 (13나) 같은 일반적 규칙(general rule)을 전제한다. 그런데 Robaldo et al.(2010: 3594-3597)에서는 (13가)가 부정하는 기대를 (13나)가 아니라 일반적 규칙인 (13나)로부터 도출된 구체적인 진술인 ‘John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시험에 통과했다.’로 기술하였다. 즉 전제되는 일반적 규칙은 양보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진술을 도출하는데 이렇게 도출된 결과물이 기대라고 보았다. 도출의 결과물인 기대 또한 조건 형식으로 표상된다.

요컨대 양보문이 전제하는 일반적 규칙 자체를 기대라고 하든 그것에 의해 도출된 결과물을 기대라고 하든 대개의 논의에서 기술되는 기대는 <A이면 B>의 조건 형식으로 표상된다. 그러나 Sidiropoulou(1992: 209-212)에서는 일반적 규칙이 아닌 진술이 양보문의 기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진술은 조건 형식으로 표상되지 않는다.

(14) 가. Although he is Viennese, he doesn't like music. (Sidiropoulou 1992: 207, 209)

나. All Viennese like music. (Sidiropoulou 1992: 207)

다. There are Viennese who like music. (Sidiropoulou 1992: 209)

Sidiropoulou(1992: 209-212)는 (14나)와 같은 일반적 규칙이 양보문 (14가)에 의해 부정되는 기대일 수 있다고 본다. (14나)는 <A이면 B>의 형식을 가지는 ‘비엔나 사람이라면(A) 음악을 좋아한다(B).’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런데 Sidiropoulou(1992)는 (14다)와 같이 조건 형식으로 표상될 수 없는 진술도 양보문의 기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14다)는 불특정한 집단을 지시체로 가지는 진술이다. 즉 모든 혹은 대부분의 비엔나 사람이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외연이 정해지지 않은 비엔나 사람 집단이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종류의 진술은 조건 형식으로 표상되지 않는다. 즉 ‘음악을 좋아하는 비엔나 사람이 있다.’라는 진술은 ‘비엔나 사람이라면 음악을 좋아한다.’로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불특정적인 지시체를 가지는 진술은 그 자체로는 관여성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대라고 할 수 없다.

(15) 가. 꽃향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는 향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꽃향기를 좋아하고 향수를 싫어한다.)

가'. 향수를 싫어하는 사람 중에는 꽃향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향수를 싫어하고 꽃향기를 좋아한다.)

나. 꽃향기를 좋아하면 향수를 싫어한다.

나'. 향수를 싫어하면 꽃향기를 좋아한다.

(15가)와 같이 불특정적인 지시체를 가지는 진술은 ‘꽃향기를 좋아함’이 ‘향수를 싫어함’에 관여한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⁵⁾ 단지 꽃향기를 좋

5) 불특정적인 지시체를 가지는 진술이 조건문의 요소일 때에는 불특정적인 지시체가 있더라도 관여성이 나타난다. 가령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면 꽃향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향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와 같은 진술은 ‘모든 사람을 살펴봄’이 ‘꽃향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향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음이 확인됨’에 관여적임을 나타낸다.

아하는 동시에 향수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만을 나타낸다. (15가)가 관여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은 진리 함수적의 변화 없이 (15가)를 (15가)'으로 바꿔 쓰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조건 형식으로 표상되어 관여성을 나타내는 (15나)를 (15나)'으로 바꿔 쓸 때 진리 함수적 의미에 변화가 생기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15나)는 '꽃향기를 좋아함'이 '향수를 싫어함'에 관여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 (15나)'은 '향수를 싫어함'이 '꽃향기를 좋아함'에 관여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어느 한 사태가 다른 사태의 발생에 관여적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 (15가)는 이러한 의미 변화 없이 (15가)'으로 바꿔 쓰기가 가능하다. 요컨대 양보에 의해 부정되는 기대는 관여성을 나타내므로 (15가)와 같이 불특정적인 지시체를 가지는 진술은 관여성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양보에 의해 부정되는 기대라고 할 수 없다.

양보문이 일반적 규칙뿐만 아니라 불특정적인 지시체를 가지는 진술을 전제할 수도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불특정적인 지시체를 가지는 진술은 그 자체로는 기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불특정적인 지시체를 가지는 진술을 전제하는 양보문이 확인된다는 것은 조건 형식으로 표상되지 않는 진술이 기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양보문의 전제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대와 양보문의 전제가 동일하지 않다고 파악한 Robaldo et al.(2010)에서와 같이 기대를 기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적 규칙이 양보문의 전제일 때 이로부터 도출된 결과물을 기대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불특정적인 지시체를 가지는 진술이 양보문의 전제일 때에도 기대는 이러한 전제로부터 도출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도출의 과정에서 기대가 가질 것으로 요구되는 자질인 관여성이 생긴다고 말할 수 있다.

- (16) 가. 톰이 외국인이라는 해도(A) 불고기를 좋아할 것이다(not-B).
 나. (전제) 외국인 중에는 불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외국인이고 불고기를 싫어한다.)
 다. (기대) 톰이 외국인이면(A) 불고기를 싫어할 가능성이 있다(B). <A이면 B>

양보문 (16가)는 (16나)와 같은 불특정적인 지시체를 가지는 진술을 전제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16가)가 부정하는 기대는 (16나)가 아니라 (16나)로부터 도출된 (16다)라고 볼 것이다. 물론 (16나)로부터 (16다)는 타당하게 도출되지 않는다. 즉 불특정한 어떤 사람이 외국인인면서 불고기를 싫어하기도 한다는 점으로부터 특정한 사람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불고기를 싫어한다는 진술을 도출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맥락이 개입할 때 이러한 도출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16나)는 그 자체로는 불고기를 싫어하는 외국인 집단의 외연을 규정하지 않지만 외국인 톰에게 대접할 요리를 불고기로 정하는 맥락에서 언어 사용자가 (16나)와 같은 진술을 발화하는 경우, 톰이 그러한 외국인 집단에 속한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16다)와 같은 기대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16나)로부터 도출된 (16다)는 조건 형식으로 표상된다는 점에서도 확인되듯이 관여성을 나타낸다. 즉 톰이 외국인이라는 것은 톰이 불고기를 싫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여적임을 나타낸다.

다만 일반적 규칙으로부터 도출된 기대와 불특정적인 지시체를 가지는 진술로부터 도출된 기대는 참일 가능성의 높고 낮음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기대 모두 동일한 종류의 진술이다.

(17) 가. 철수가 ○○ 중학교에 다니기는 해도 공부를 못한다.

나. (전제) ○○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면 대개 공부를 잘한다.

다. (기대) 철수가 ○○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A) 공부를 잘할 것이다
(B). <A이면 B>

라. (전제) ○○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다.

마. (기대) 철수가 ○○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A) 공부를 잘할 가능성
이 있다(B). <A이면 B>

(17가)와 같은 양보문은 (17나)와 같은 일반적 규칙을 전제할 수 있다. 이때 (17가)는 (17나)로부터 도출된 (17다)와 같은 기대를 부정한다. 양보문 (17가)는 (17라)와 같은 불특정적인 지시체를 가지는 진술을 전제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17라)로부터 도출된 (17마)와 같은 기대를 부

정한다. (17다)와 (17마)는 진술이 참일 가능성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즉 불특정적인 지시체를 가지는 진술로부터 도출된 (17마)는 일반적 규칙으로부터 도출된 (17다)보다 참일 가능성이 낮다.⁶⁾ 그러나 (17다)와 (17마)는 모두 <A이면 B>의 조건 형식으로 표상되는 동일한 종류의 진술이다. 일반적 규칙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예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 ‘대개’와 같은 의미는 도출의 과정에서 도출된 진술의 참일 가능성이 100%는 아니지만 비교적 높다는 것으로 대체되며 불특정적인 지시체를 가지는 진술의 불특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능성으로 대체된다. 즉 일반적 규칙과 불특정적 지시체를 가지는 진술의 종류상의 차이는 도출을 거쳐 정도상의 차이로 대체되며 그 결과 전제의 종류와 무관하게 <A이면 B>의 동일한 종류의 진술만이 도출된다.

기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 규칙뿐만 아니라 불특정적인 지시체를 가지는 진술도 양보문의 전제일 수 있다. 불특정적인 지시체를 가지는 진술은 조건 형식으로 표상되지 않기 때문에 양보문의 전제가 곧 기대라면 기대에는 두 종류의 상이한 진술이 있게 된다. 그러나 기대는 전제로부터 도출된 결과물이며 전제의 종류와 무관하게 기대가 되는 진술은 <A이면 B>의 조건 형식으로 표상되는 진술이다.

그런데 기대가 <A이면 B>의 조건 형식으로 표상된다는 점은 바꿔 쓰기를 통해 기대를 다양한 모습으로 표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A이면 B>가 가지는 의미부터 언급하고자 한다. <A이면 B>란 곧 A는 B의 충분조건임을 나타내고, B는 A의 필요조건임을 나타낸다. 즉 <A이면 B>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 (18) 가. 어떤 것이 포유류에 속한다면(A) 그것은 동물이다(B). <A이면 B>
나. 어떤 것이 포유류에 속하면서 동물이 아닐 수는 없다.
다. 오직 동물인 것만이 포유류에 속한다.

6) 본고에서는 (17마)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포함시켜 기술하는 것으로 일반적 규칙으로부터 도출된 기대와의 차이를 반영하였다.

A가 B의 충분조건이라는 것은 ‘A일 때 반드시 B임’을 의미한다. 즉 (18가)는 (18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가령 포유류에 속하는 개, 고양이 등은 모두 동물이다. 포유류에 속하는 것들의 목록을 작성했을 때 동물이 아닌 경우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B가 A의 필요조건이라는 말은 ‘오직 B만이 A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B가 A의 필요조건임을 나타내는 (18가)는 (18다)의 의미 또한 가진다. 가령 동물이 아닌 것들인 식물, 무생물 등은 포유류에 속할 수 없다. 포유류 목록을 작성해보면 그 목록 안에는 동물인 것들만 있을 것이다. X가 Y의 원인이라는 것은 Y가 X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처럼, A가 B의 충분조건이라는 것은 B는 A의 필요조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어야’가 쓰인 문장에서 종속절에 필요조건이 언어화되고, 주절에 충분조건이 언어화된다. 즉 ‘-어야’는 ‘-으면’과는 반대 위치에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을 언어화한다. 따라서 <A이면 B>는 <B이어야 A>의 형식과 논리적으로 동치이다. 그리고 <A이면 B>는 <not-B이면 not-A>의 형식과 논리적으로 동치이다. 둘은 대우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not-B이면 not-A>는 <not-A이어야 not-B>와 논리적으로 동치이다. <A이면 B>가 <B이어야 A>와 논리적으로 동치인 것과 같은 이유이다. 따라서 <A이면 B>는 <B이어야 A>, <not-B이면 not-A>, <not-A이어야 not-B>로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

(19) 가. 어떤 것이 포유류에 속한다면(A) 그것은 동물이다(B). <A이면 B>

(= 18가)

나. 동물이어야(B) 포유류이다(A). <B이어야 A>

다. 동물이 아니면(not-B) 포유류가 아니다(not-A). <not-B이면 not-A>

라. 포유류가 아니어야(not-A) 동물이 아니다(not-B). <not-A이어야 not-B>

(19나-라)는 <A이면 B>의 조건 형식을 가지는 (19가 = 18가)와 논리적으로 동치이다. 물론 <A이면 B>의 형식으로 표상되는 (19가 = 18가)가 가지는 (18나)와 (18다)의 의미 또한 공유한다.

초시간적인 진술에서는 (19가-라)와 같이 서로 간의 바꿔 쓰기를 하더라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A와 B 사이에 시간적인 순서가

있는 경우에는 바꿔 쓰기를 하면 의미가 달라질 때가 있다.

- (20) 가. 비가 오면(A) 소풍을 가지 않는다(B). <A이면 B>
나. ???소풍을 가지 않아야(B) 비가 온다(A). <B이어야 A>
다. ???소풍을 간면(not-B) 비가 오지 않는다(not-A). <not-B이면 not-A>
라. 비가 오지 않아야(not-A) 소풍을 간다(not-B). <not-A이어야 not-B>

(20나), (20다)는 (20가)와 의미가 다르다. 즉 두 사태의 시간적 순서가 다르다. (20가)를 바꿔 쓴 (20나), (20다)가 (20가)와 다른 의미를 가지는 원인은 A와 B 사이에 시간적인 순서가 있기 때문이다. 자연 언어에서의 문장은 시간적인 도상성을 반영한다(Dixson & Aikhenvald 2009: 37). 그리고 ‘-으면’이나 ‘-어야’에 의해 이끌리는 종속절에는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사태가 언어화되거나 도출 관계에 있어 선행되어야 하는 지식이 언어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20가)에서 시간적으로 후행하는 ‘소풍을 감/가지 않음’이 (20나)와 (20다)에서처럼 종속절에 언어화되면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사태가 된다. 그 결과 (20나), (20다)는 (20가)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는 (20라)와 같이 시간적으로 선행되는 사태가 종속절에 언어화되는 경우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요컨대 기대의 표상은 조건 형식을 유지하는 한 다양하게 바꿔 쓰기될 수 있으나, 자연 언어가 반영하는 시간적 도상성 때문에 때때로 바꿔 쓰기의 결과물이 어색할 때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로 <A이면 B>로 기대를 표상하되, 필요에 따라 표상이 가시적으로 드러내주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표상을 쓰고자 한다. 가령 필요조건의 의미는 ‘-어야’를 사용하여 표상할 때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가령 물을 마시는 것이 삶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은 ‘물을 마셔야(B) 산다(A). <B이어야 A>’로 표상하는 것이 그 의미를 가장 잘 보여준다.

2.2.2. 양보가 부정하는 의미

양보를 A가 B의 충분조건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파악한 견해가 있다 (Dancygier 1988: 114). 이러한 견해와 앞서 본 조건 형식이 가지는 의미를 바탕으로 양보문이 부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이는 제3장에서 첨가 초점사가 조건적 양보를 표현하는 데 쓰이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Dancygier(1988: 114)는 양보란 A가 B의 충분조건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21) I'll go hiking even if it rains. (Dancygier 1988: 113)

(21)은 '(나는) 비가 오면 하이킹을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부정한다. 그리고 Dancygier(1988)에서는 이때 '비가 옵니다'는 '하이킹을 가지 않음'의 충분조건으로 본다.

앞서 A가 B의 충분조건이라는 것은 곧 B가 A의 필요조건이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Dancygier(1988)의 주장은 양보가 B가 A의 필요조건임을 부정한다는 것으로 바꿔 이해할 수도 있다. 또한 <A이면 B>가 <not-A이어야 not-B>로 바꿔 쓸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Dancygier(1988)의 주장은 양보가 not-A가 not-B의 필요조건임을 부정한다는 것으로 바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래 (22가)와 같은 양보문이 부정하는 기대는 (22나)로도 나타낼 수 있고, (22다)로도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부정되는 기대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22) 가. 풍량이 거세도(A) 배를 띄울 것이다(not-B).

나. (기대) 풍량이 거세면(A) 배를 띄우지 않는다(B). <A이면 B>

다. (기대) 풍량이 거세지 않아야(not-A) 배를 띄운다(not-B). <not-A 이어야 not-B>

(23) 가. 풍량이 거센 상황이면 배를 띄우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나. 오직 풍량이 거세지 않은 상황에만 배를 띄운다.

양보문 (22가)는 기대 (22나), 기대 (22다)를 부정한다. 기대 (22나)는 A가 B의 충분조건임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A가 B의 충분조건이라는 이러한 의미는 (23가)로 풀어 쓸 수 있다. 즉 (22가)는 (23가)를 부정한다. 그리고 한편으로 (22다)는 not-A가 not-B의 필요조건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러한 의미는 (23나)로 풀어 쓸 수 있다. 그리고 (23나)로 풀어 썼을 때, (22가)가 ‘오직’의 의미를 부정한다는 점이 드러난다.⁷⁾

양보가 부정하는 기대의 의미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양보의 핵심 의미는 비관여성이다. 그리고 이 비관여성은 A가 B에 대해서 가지는 관여성을 부정한다. 기대는 관여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모든 기대는 조건 형식을 가진다. 즉 모든 기대는 <A이면 B>로 표상할 수 있다. 그리고 <not-A이어야 not-B>로도 표상될 수 있다. 이 또한 조건 형식을 가지기 때문이다. 기대가 <not-A이어야 not-B>로 표상된다는 점은 양보가 ‘오직’의 의미를 부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2.3. 양보문의 사실성

양보는 사태의 사실성에 따라 나뉘기도 한다.

(24) 가. 철수는 도움을 받았는데도 그 일을 시간 내에 끝내지 못했다.

7) 영어와 같이 ‘오직’을 의미하는 단어와 (충분조건을 종속절에 언어화하는) 조건 표지가 결합하여 종속절에 필요조건이 언어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언어에서는 (23나)와 같은 풀어 쓰기를 하지 않아도 ‘오직’의 의미가 부정되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양보문 ‘We will have the picnic, even if it rains.’는 ‘We will have the picnic, only if it does not rain.’과 같은 기대를 부정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양보문이 기대의 ‘only’를 부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철수는 도움을 받아도 그 일을 시간 내에 끝내지 못할 것이다.

(24가)는 ‘철수가 도움을 받음’이 사실임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24나)는 ‘철수가 도움을 받음’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중립적이다. 즉 사태가 실제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전달하는 바가 없다. (24가)와 같은 양보를 ‘사실적 양보(factual concessive)’라고 하고 (24나)와 같은 양보를 ‘조건적 양보(conditional concessive)’라고 한다.⁸⁾

많은 언어에서, (첨가 초점사에 의해 형성된) 조건적 양보 표지들이 쓰인 문장이 사실적으로 해석되는 현상이 확인된다(König 2006: 822). 그리하여 Rudolph(1996)에 따르면 조건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를 나누지 않는 견해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적 양보만을 배타적으로 나타내는 표지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가령 대조 표지로도 쓰이는 ‘-지만’, ‘-으나’와 ‘-은데도’, ‘-음에도’, 현대 영어의 ‘though’, ‘although’가 이끄는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는 반드시 사실로 해석된다. 사실적 양보만을 배타적으로 표시하는 표지가 존재하므로 범언어적인 차원의 범주에서는 사실적 양보와 조건적 양보를 나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건적 양보 표지가 쓰인 문장에서 나타나는 사실적 해석은 조건적 양보가 가지는 사실성에 대해 중립적인 성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조건문 또한 사실성에 중립적이며 맥락 등의 요인에 의해서 종속절이 지시하는 사태가 사실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25) 가. 늦게 출발하면 늦게 도착할 것이다.

나. 이렇게 늦게 출발하면 늦게 도착할 것이다.

8) ‘사실적 양보(factual concessive, Rudolph 1996)’ 대신에 ‘양보(concessive, König 1986)’, ‘진정한 양보(genuine concessive, König 2006)’, 등의 용어가 쓰이기도 하고, ‘조건적 양보(conditional concessive Sawada 2003)’ 대신에 ‘양보적 조건(concessive conditional König 2006)’, ‘비관여적 조건(irrelevance conditional König 1985)’ 등의 용어가 쓰이기도 한다. 사실적인 양보와 조건적인 양보를 구별하면서 둘을 아우르는 용어를 설정하여 기술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본고에서는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가 사실로만 해석되는 양보를 ‘사실적 양보’라고 부르고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의 사실성에 대해 중립적인 양보를 ‘조건적 양보’라고 부르려고 한다. 둘을 아울러 ‘양보’라 부를 것이다.

조건문 (25가)는 ‘늦게 출발함’이 실제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중립적이다. 그런데 조건문 (25나)의 경우 ‘늦게 출발함’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조건문에서는 사태가 사실로 해석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를 고려하면 조건적 양보 표지가 쓰인 문장에서도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가 사실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가 명확하게 사실이 아닌 경우를 ‘반사실적 조건적 양보’로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 반사실적 조건적 양보에서는 기대가 반사실적이다.

(26) 가. (기대) (철수한테 부탁하지 않았고, 철수가 도와주지 않은 상황) 철수한테 부탁했다면 철수가 도와줬을 것이다.

나. 철수한테 부탁했더라도 도와주지 않았을 것이다.

부정되는 기대가 (26가)와 같이 반사실적 조건일 때 이를 부정하는 (26나)는 실제로는 철수한테 부탁하지 않았지만 그러했을 것이라는 반사실을 가정한다. 이러한 조건적 양보를 반사실적 조건적 양보라고 한다.

2.4. 양보를 표현하는 세 가지 방책

Haspelmath & König(1998)에서는 유럽어들을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건적 양보를 나타내는 세 가지 주요 표현 방책이 있음을 보였다. Bisang(1998)에서는 극동 아시아 언어들에서도 이러한 제안이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27) Even if we do not get any financial support, we will go ahead with our project. (Haspelmath & König 1998: 563)⁹⁾

(28) Whether we get any financial support or not, we will go ahead with

9) 원문에는 밑줄이 없다. 앞으로 필요할 경우 원문에 밑줄이 없어도 밑줄을 표시하고자 한다.

our project. (Haspelmath & König 1998: 563)

- (29) No matter how much financial support we get, we will go ahead with your project. (Haspelmath & König 1998: 563)

(27)의 ‘even’과 같은 첨가 초점사(additive particle)는 조건적 양보를 표현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이와 같이 첨가 초점사를 수단으로 하여 표현되는 조건적 양보를 Haspelmath & König(1998)에서는 ‘척도 조건 양보(scalar concessive conditional)’라고 부른다. (28)의 ‘or’와 같은 이접 연결사 또한 조건적 양보를 표현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이처럼 표현된 조건적 양보는 ‘대안 조건적 양보(alternative concessive conditionals)’라고 불린다. 영어의 ‘no matter how’, ‘however’과 같은 ‘보편/자유선택 양화사(universal/free-choice quantifier)’에 의해 조건적 양보가 표현되기도 한다. (29)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된 조건적 양보의 사례이다. 이러한 조건적 양보는 ‘보편 양화의 조건 양보(universal concessive conditionals)’라고 부른다.

본고에서는 Haspelmath & König(1998)에서 제안된 세 가지 표현 방식이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각각 제3장, 제4장, 제5장에서 고찰할 것이다. 용어를 다음과 같이 바꿔서 부르고자 한다. ‘척도 조건 양보’는 ‘첨가 초점사 양보’라고 부를 것이다. Haspelmath & König(1998)에서는 첨가 초점사에 의해 조건적 양보가 표현될 때 항상 척도가 도입된다고 본다. 그러나 첨가 초점사가 출현하는 조건적 양보문에서 척도가 확인되지 않는 한국어 사례를 제3장에서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어의 사례는 첨가 초점사에 의해 표현되는 조건적 양보의 보다 단순하고 기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첨가 초점사에 의해 표현되는 조건적 양보를 부를 때 ‘척도’라는 말을 제외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첨가 초점사가 사실적 양보표지를 형성하는 데에도 참여하므로 ‘조건’이라는 말 또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

‘대안 조건적 양보’는 ‘이접 양보’라고 부를 것이다. 몇몇 언어에서 첨가 초점사를 사용하여 ‘A + 첨가 초점사, not-A + 첨가 초점사’의 형태로 어떤 사태와 그것의 부정을 언어화하는 사례들이 확인된다.

Haspelmath & König(1998)에서는 첨가 초점사에 의해 A와 not-A가 언어화되어 있는 것들과 이접 연결사에 의해 A와 not-A가 언어화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 이들을 ‘대안 조건적 양보’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첨가 초점사에 의해 A와 not-A가 언어화되는 사례들은 첨가 초점사 방책의 한 종류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대안 조건적 양보’에 해당하는 표현들은 이접 연결사가 사용되는 표현들만 남게 되므로 ‘대안’이라는 용어 대신 ‘이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보편 양화의 조건적 양보’는 ‘자유 선택사 양보’라고 부를 것이다. 보편/자유 선택 양화사가 쓰인 양보문은 변수값 중에 어떤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결론이 나타난다는 의미를 가진다. 보편 양화의 의미가 자유 선택에서 비롯되므로 ‘보편 양화’라는 용어 대신 ‘자유 선택’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2.5. 요약

제2장에서는 이후 논의의 기반이 되는 내용들을 다뤘다. 첫째 양보의 정의와 종류를 알아보았다. 양보의 핵심 의미는 비관여성이다. 즉 양보문은 어떤 사태/지식이 다른 사태/지식 혹은 화행에 관여적이라는 기대를 부정한다. ‘ $A \rightarrow B$ ’ 연쇄와 ‘ $C \rightarrow \text{not-}B$ ’의 두 가지 연쇄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문장에 무엇이 언어화되는지에 따라 기대는 두 가지 방식으로 부정될 수 있다. A와 not-B가 언어화되어 기대를 부정할 수도 있고, A와 C가 언어화되어 기대를 부정할 수도 있다. 각각은 ‘직접부정’과 ‘간접부정’으로 불린다. 직접부정뿐만 아니라 간접부정 또한 $\langle A \text{이면 } B \rangle$ 의 기대를 부정한다. 둘째 양보문이 부정하는 기대를 알아보았다. 모든 기대는 $\langle A \text{이면 } B \rangle$ 의 조건 형식으로 표상된다. 그리고 기대는 $\langle A \text{이면 } B \rangle$ 와 논리적으로 동치인 $\langle \text{not-}A \text{ 이어야 } \text{not-}B \rangle$ 의 조건 형식으로도 표상될 수 있다. 기대를 $\langle \text{not-}A \text{ 이어야 } \text{not-}B \rangle$ 로 표상할 때 양보가 ‘오직’의 의미를 부정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 외에도 양보문의 사실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가 사실로만 해석되도록 하는 양보 표지

도 있고,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가 사실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확정하지 않는 양보 표지도 있다. 각 표지들이 표현하는 양보를 사실적 양보와 조건적 양보라고 부른다. 제2장에서 마지막으로 알아본 것은 양보를 표현하는 주요한 세 가지 방식이다. 양보는 한국어의 ‘도’와 같은 첨가초점사에 의해 표현되기도 하고, 이접 연결사에 의해 표현되기도 하고, 경우의 수 중에 어떤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자유 선택사에 의해 표현되기도 한다.

3. 첨가 초점사 양보

한국어에서 첨가 초점사 방책을 담당하는 표현들은 ‘도’ 결합형 연결어미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사실적 양보를 나타내고 일부는 조건적 양보를 나타낸다. 첨가 초점사 방책에 의한 조건적 양보는 척도성과 총망라성을 필수적으로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첨가 초점사가 쓰인 조건적 양보문 중에 척도성과 총망라성을 가지지 않는 문장이 확인된다. 이러한 언어 현상과 제2장에서 확인한 기대의 의미를 바탕으로 첨가 초점사 방책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제3장에서는 척도적인 첨가 초점사의 초점이 언제나 끝값임을 논증할 것이다.

3.1. 첨가 초점사에 의해 형성되는 양보 표지

첨가 초점사란 초점과 대안집합이 동일한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첨사(particle)를 말한다.¹⁰⁾

(30) 영희도 집에 갔다.

(30)에서 첨가 초점사 ‘도’의 초점은 영희이다. 첨가 초점사는 대안집합을 생성한다. (30)은 영희 외에 불특정한 사람을 대안집합으로 한다. 그리하여 첨가 초점사 ‘도’가 쓰인 (30)은 영희 외의 사람인 대안집합의 원소들 또한 영희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30)은 초점인 영희와 영희 외의 사람이 집에 갔음을 나타낸다.

10) ‘첨가 초점사’는 König(1991b)의 ‘additive particle’을 번역한 것이다. 초점을 가지는 기능을 나타내고자 ‘초점’이라는 용어를 포함하여 번역하였다.

첨가 초점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단순히 대안집합을 생성하는 비척도적인 첨가 초점사이다. 영어의 ‘also’와 같은 것들이 이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척도적인 첨가 초점사이다. 척도적인 첨가 초점사도 비척도적인 첨가 초점사처럼 대안집합을 생성한다. 그런데 척도적인 첨가 초점사는 대안집합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척도를 도입하며 척도상의 끝값(extreme value)을 초점으로 한다. 영어의 ‘even’과 같은 것들이 척도적인 첨가 초점사이다. 독일어의 ‘auch’처럼 비척도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척도적으로 쓰이기도 하는 첨가 초점사도 있다(König 1991b: 69). 한국어의 첨가 초점사 ‘도’ 또한 비척도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척도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박진호 2015: 407).

비척도적인 의미를 가지는 첨가 초점사와 척도적인 의미를 가지는 첨가 초점사가 쓰인 문장의 의미 차이는 아래와 같다.

(31) 가. 철수도 영화를 좋아한다.

나. 철수는 영화를 좋아한다.

다. 철수 외의 사람 중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32) 가. 아인슈타인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할 것이다.

나. 아인슈타인은 그 문제를 풀지 못할 것이다.

다. 아인슈타인 외의 사람 중에 그 문제를 풀지 못할 사람이 있다.

라. 척도 함축: 아무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한다.

비척도적인 의미를 가지는 첨가 초점사가 쓰인 (31가)는 첨가 초점사를 제외한 문장 (31나)와 대안집합의 존재를 명시하는 문장 (31다)로 풀어 쓸 수 있다. 척도적인 의미를 가지는 첨가 초점사가 쓰인 (32가) 또한 첨가 초점사를 제외한 (32나)와 대안집합의 존재를 명시하는 (32다)로 풀어 쓸 수 있다. (31가)와 (32가)의 의미상의 차이는 (32라)와 같은 척도 함축의 유무다.

(32라)와 같이 아무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의미가 생기는 원인은 척도 함축이 끝값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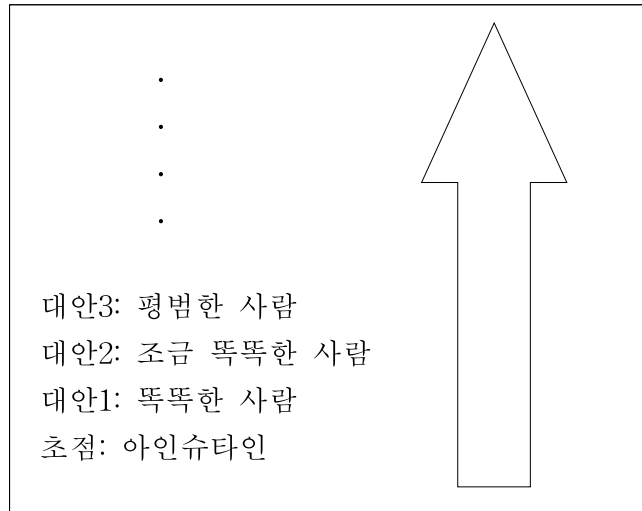


그림2. (32)가 가지는 척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면 그림2에서와 같이 아인슈타인은 가장 낮은 순위에 위치한다. 즉 아인슈타인은 끝값이다. 그런데 그 문제를 풀지 못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아인슈타인이 그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그보다 그 문제를 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또한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의미가 발생한다. 이 경우 척도 함축은 끝값으로부터 시작되므로 결국 모든 사람이 그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의미가 생긴다.

첨가 초점사는 여러 언어에서 조건적 양보를 표현하는 주요한 수단이다(Haspelmath & König 1998: 585).

(33) 네덜란드어

zelfs als het regent zullen we naar buiten gaan.
even if it rains will we to outside go
'even if rains we will go outside' (Haspelmath & König 1998: 586).

(34) 추바시어

Šumar šu-san ta, epir urama kaj-atpăr.
rain fall-COND also (?) outside go-1PL
'even if rains we will go outside' (Haspelmath & König 1998: 587).

(35) 일본어

Ashita wa ame ga fut-te-mo ensoku ni iku
tomorrow TOP rain NOM fall-CONV-also picnic DAT go
'even if rains tomorrow we will have a picnic' (Haspelmath & König 1998: 587)

네덜란드어의 'zelfs', 추바시어의 'ta', 일본어의 'mo'는 첨가 초점사이다. (33-35)에서와 같이 각 첨가 초점사들은 조건적 양보 표지의 형성에 참여한다.

한국어에서는 첨가 초점사 '도'가 양보 표지 형성에 쓰인다. 그간의 연구에서 '도'가 결합하여 양보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는 '-은데도', '-음에도', '-고도', '-어도', '-더라도', '-라도', '-을지라도'가 언급되었다.¹¹⁾¹²⁾

3.2. 첨가 초점사 양보의 의미

한국어의 '도'는 조건적 양보 표지뿐만 아니라 사실적 양보 표지의 형성에도 쓰인다. 제2절에서는 '도' 결합형 연결어미들 중에 어떤 것들이

11) '-라도'는 '-어도'가 계사 '이-' 뒤에서 바뀐 것이다(윤평현 1989: 37).

12) '도' 결합형 연결어미가 양보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가령 '지원군이 오지 않으면 퇴각할 것이고, 보급품이 부족해도 퇴각할 것이다.'의 '-어도'는 단순히 첨가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런데 이때의 첨가의 의미는 결국 양보의 의미와 연관이 깊다. 후술하겠지만 양보의 의미는 기대가 가지는 '오직'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에 있는데 '오직'의 의미는 첨가의 의미로 부정되기 때문이다.

사실적 양보를 나타내고 어떤 것들이 조건적 양보를 나타내는지 확인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에서 확인되는 언어 현상을 바탕으로 첨가 초점사 방책에 의한 양보에서 척도성과 총망라성이 필수적이지 않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척도적인 의미를 가지는 첨가 초점사가 쓰인 문장에서 초점은 항상 끝값임을 보일 것이다.

3.2.1. 첨가 초점사 양보문의 사실성

‘-은데도’가 이끄는 절이 지시하는 사태는 사실로만 해석된다(박진호 2012: 487, 구재희·장채린 2014: 97). ‘-음에도’ 또한 그렇다(함병호: 2013: 133).

- (36) 가. 어제 비가 왔는데도 소풍을 갔다(박진호 2012: 487)
나.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함병호: 2013: 133)

가령 (36가)와 (36나)에서 비는 실제로 온 것으로 해석된다.

양보문의 사실성에 대해 언급하는 연구에서 ‘-어도’는 공통되게 사실적 양보와 조건적 양보를 나타낸다고 기술되어 있다.

- (37) 가. 날씨가 안 좋아도 소풍을 갔다. (이은경 1996: 190)
나. 시험에 합격해도, 나는 진학할 수 없다. (윤평현 1989: 42)

(37)은 ‘-어도’가 쓰인 문장들인데, (37가)에서는 날씨는 실제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37나)는 시험에 합격했는지에 대해서 중립적이다. 혹은 합격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립적이다.

대개의 논의에서 ‘-더라도’와 ‘-을지라도’는 조건적 양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 (38) 가. 만일 실형이 떨어지더라도 준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안

찬원 2000: 41)

나. 그 일을 성공했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지는 못할 것이다.
(백낙천 2011: 132)

(38가-나)의 ‘-더라도’와 ‘-을지라도’가 쓰인 문장은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의 사실성에 대해서 중립적이다. 즉 (39가)는 실행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전달하는 바가 없고, (39나)에서는 그 일을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전달하는 바가 없다.

그런데 ‘-더라도’, ‘-을지라도’가 이끄는 절이 지시하는 사태가 사실적으로 해석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서정섭 1991: 48-49, 박진희 2011: 94-95, 함병호: 2013: 133).

(39) 가. 비가 오더라도 적당히 왔으면 좋겠어 이것은 쏟아 붓는 격이야.
(서정섭 1991: 50)

나. 그는 힘이 약할지라도 기술이 좋다. (박진희 2011: 95)

가령 ‘-더라도’가 쓰인 (39가)에서 비는 실제로 온 것으로 해석된다. ‘-을지라도’가 쓰인 (39나)에서도 그는 실제로 힘이 약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건적 양보를 나타내는 표지가 쓰인 문장의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가 사실적으로 해석되는 현상은 다른 언어에서도 확인된다.

(40) 가. Even if he is my brother, I am not going to give him any more money. (König 2006: 822)

나. Even if she's fat, she's still pretty. (Dancygier 1988: 119)

영어의 ‘even if’는 그 구성에서도 나타나듯 조건적 양보 표지이다. 그런데 (40가)는 사실적으로 해석된다고 한다(König 2006: 822). (40나)에서 ‘even if’는 사실적 양보를 나타내는 ‘although’와 교체될 수 있다고 한다(Dancygier 1988: 119). 즉 (40나)에서 그녀는 실제로 뚱뚱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한다. 첨가 초점사에 의해 형성된 조건적 양보 표지가 쓰인 문장의 양보절이 사실적으로 해석되는 현상은 많은 언어에서 확인되며 아

마도 대부분의 언어에서 그러할 것이라고 한다(König 2006: 822). ‘-더라도’, ‘-을지라도’가 쓰인 문장에서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가 사실로 해석되기도 하는 이러한 현상은 조건적 양보 표지가 사실성에 중립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범언어적 현상의 한 사례로 보인다.

‘-고도’가 이끄는 양보절은 항상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진희 2011: 94, 구재희·장채린 2014: 97). 실제로 ‘-고도’가 쓰인 문장의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는 대개 사실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도’가 쓰인 문장이 사실성에 중립적인 말뭉치 용례가 확인된다.

(41) 가. 만약 徻役의 이중 부담이 문제였다면, 그것은 토지를 지급하지 않고도 시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세종)¹³⁾

나. 별을 보여드립니다. 5원- 등불을 밝히자 망원경 동체에 붙은 표딱지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피식 웃었다. 지금이라면 나는 그 5원을 내지 않고도 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종)

가령 (41가)에서는 토지를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중립적이며, (41나)에서는 5원을 내는지에 대해서 중립적이다. (41)의 말뭉치 용례에서는 ‘-고도’가 조건문의 영향권 안에 있기는 하다. 즉 ‘-고도’가 쓰인 양보문이 조건문의 주절에 위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은 특징적이다. 사실적 양보를 나타내는 ‘-은데도’, ‘-음에도’가 쓰인 양보문은 조건문의 주절에 위치하더라도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가 사실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42) 가. 면접에 가지 않는다면, 철수는 시험을 잘 보고도 떨어질 것이다.

나. 면접에 가지 않는다면, 철수는 시험을 잘 봤는데도 떨어질 것이다.

다. 면접에 가지 않는다면, 철수는 시험을 잘 봤음에도 떨어질 것이다.

(42가)는 철수가 실제로 시험을 잘 봤는지 혹은 잘 볼 것인지에 대해 전달하는 바가 없다. 이는 ‘-은데도’가 쓰인 (42나)나 ‘-음에도’가 쓰인 (42다)가 보이는 현상과는 대조적이다. 즉 (42나)와 (42다)는 철수가 시험을

13) 세종 말뭉치 용례는 ‘(세종)’으로 표시하였다.

잘 본 것으로 해석된다.¹⁴⁾

요컨대 한국어의 ‘-어도’, ‘-더라도’, ‘-을지라도’는 조건적 양보 표지인데, 이것들이 쓰인 문장의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가 사실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범언어적으로 조건적 양보 표지가 쓰인 양보문의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가 사실적으로 해석되는 현상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도’, ‘-더라도’, ‘-을지라도’가 이끄는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가 사실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그것들을 조건적 양보 표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가 사실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가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현상은 조건적 양보 표지가 사실성에 대해 중립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문장에 쓰인 양보 표지가 다의어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다.¹⁵⁾ 즉 ‘-어도’, ‘-더라도’, ‘-을지라도’가 사실적 양보와 조건적 양보의 두 의미를 가지는 다의어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의미가 선택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어도’, ‘-더라도’, ‘-을지라도’ 중에 어떤 것이 다의어인지, 어떤 것이 조건적 양보의 의미만을 가지는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양보 표지가 다의어이기 때문에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가 사실적으로도 해석되는 것을 조건적 양보 표지가 쓰였기 때문에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가 사실적으로도 해석되는 것으로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말뭉치 추출 결과를 바탕으로 ‘-어도’는 다의어로, ‘-더라도’, ‘-을지라도’는 단의어로 판정하고자 한다. 자세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기는/긴’은 사태가 사실임을 인정하는 데 쓰인다. 한편 ‘-다고’는 양보 표지가 가정적으로 쓰일 때, 가정을 잉여적으로 나타내준다.

(43) 가. 영희가 예쁘기는 하지.

14) 제5장에서 다룰 자유 선택사 방책에 의한 양보에서도 ‘-고도’는 독특한 모습을 보인다. 사실적 양보만을 나타내는 ‘-은데도’, ‘-음에도’는 자유 선택사 형성에 쓰이지 않는데 ‘-고도’는 쓰인 용례가 드물게 확인된다.

15) 본고에서는 조건의 개념과 가정의 개념을 구별하여 쓰고자 한다. 조건의 개념은 사실성에 대해 중립적인 것을 말한다. 즉 조건 표지는 사태가 사실인지 혹은 아닌지 전달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문장은 사실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가정은 사실성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다. 즉 문장은 사실로 해석되지 않는다.

- 나. 밥을 먹긴 했어.
 다.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차는 막히지 않을 것이다.
 다'. 비가 오더라도 차는 막히지 않을 것이다.
 라. 지금 출발한다고 해도 이미 늦었어.
 라'. 지금 출발해도 이미 늦었어.

(43가)에서 ‘-기는’은 영화가 예쁘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쓰이고, (43나)에서 ‘-긴’은 밥을 먹었음을 인정하는 데 쓰이고 있다. (43다)는 비가 오는 상황을 가정하는 문장인데 이때 ‘-다고’는 잉여적으로 출현하여 가정을 나타내고 있다. (43라) 또한 지금 출발하는 것을 가정하는 문장으로, ‘-다고’가 잉여적으로 가정을 나타낸다. 가정의 의미를 표현함에 있어 ‘-다고’가 잉여적임은 (43다)와 (43라)에서 ‘-다고’를 제외한 (43다)’과 (43라)’이 여전히 가정을 나타낼 수 있음에서 드러난다.

‘-기는’과 ‘-다고’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조건성을 가지는 연결어미는 ‘-기는’과의 결합에 제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¹⁶⁾ 반면 사실적 양보와 조건적 양보의 의미를 모두 가지는 다의어는 ‘-기는’과의 결합에 별다른 제약을 보이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세종 원시 구어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현	추출 개수	‘-다고’ 결합형 + ‘-기는/긴’ 결합형에서 ‘-기는/긴’ 결합형의 비율
-다고 해도	1550	23.6%
-기는/긴 해도	135+231 ¹⁷⁾	
-다고 하더라도	793	1%
-기는/긴 하더라도	4+4	
-다고 할지라도	102	1.9%
-기는/긴 할지라도	2+0	

표1. ‘-다고’ 결합형과 ‘-기는/긴’ 결합형 말뭉치 추출 결과

16) 조건 표지인 ‘-으면’과 ‘-기는/긴’이 결합한 ‘-기는/긴 하면’은 세종 원시 구어 말뭉치에서 추출되지 않는다.

17) ‘+’ 앞에 오는 숫자는 ‘-기는’이 결합한 추출 사례의 개수이고 뒤에 오는 숫자는 ‘-긴’이 결합한 추출 사례의 개수이다.

‘-어도’의 경우 ‘-다고’ 결합형과 ‘-기는/긴’ 결합형을 합한 수에서 ‘-기는/긴’ 결합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23.6%인 반면 ‘-더라도’, ‘-을지라도’는 ‘-다고’ 결합형과 ‘-기는/긴’ 결합형을 합한 수에서 ‘-기는/긴’ 결합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2% 미만이다. ‘-어도’가 ‘-기는/긴’과의 결합에 별다른 제약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어도’는 사실적 양보와 조건적 양보의 두 의미를 모두 가지는 다의어로 생각된다. 반면 ‘-더라도’, ‘-을지라도’는 조건적 양보 표지에 더 가까운 듯하다.

사실적 양보 표지와 조건적 양보 표지의 구별에 관련하여 추가적인 것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원칙적으로 ‘도’ 결합형 연결어미에 의해 양보가 표현될 경우 사실적 양보와 조건적 양보의 의미 구분에 주절의 시제와 서법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적 양보는 사태가 사실이라는 점에 바탕을 두고 기대를 부정하기 때문에 주절의 시제가 과거인 경우가 많고, 주절에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서법 표지가 출현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조건적 양보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기대를 부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절의 시제가 미래인 경우가 많고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서법 표지가 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제나 서법이 ‘-더라도’, ‘-을지라도’가 쓰인 양보문의 사실성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44) 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도/???했을지라도 합격하지 못했다.
 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합격하지 못했다.
 나. 밥을 ???먹었더라도/???먹었을지라도 배가 고팠다.
 나’. 밥을 먹었어도 배가 고팠다.

(44가)와 같이 ‘-더라도’, ‘-을지라도’ 쓰인 문장에서 과거 시제가 쓰이고 ‘-을 것이-’가 출현하지 않는 경우 문장이 비교적 어색하게 느껴진다. (44나) 또한 ‘-을 것이-’가 출현하지 않아 어색하다. 이는 다의어인 ‘-어도’가 쓰인 (44가)’이나 (44나)’에서 과거 시제가 쓰이고 ‘-을 것이-’가 출현하지 않았을 때 문장이 자연스러운 것과는 대조적이다. 만약 ‘-더라도’나 ‘-을지라도’가 쓰인 양보문의 사실성이 시제나 서법에 의해 결정된

다면 과거 시제가 쓰이고 ‘-을 것이-’가 출현하지 않은 (44가)나 (44나)는 문장이 어색하지 않으면서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가 사실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보전대 서법이나 시제에 의해 ‘-더라도’나 ‘-을지라도’가 쓰인 양보문의 사실성이 결정된다고 기술하기보다 양보문의 의미에 의해 서법과 시제가 선택된다고 기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법이나 시제에 의해 사실성이 결정되는 것은 다의어의 경우이다.

(45) 눈이 왔어도 차가 막히지 않았다.

(45)' 눈이 왔어도 차가 막히지 않았을 것이다.

앞서 표1이 나타내는 말뭉치 추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의어로 판정한 ‘-어도’가 쓰인 문장에서는 (45)와 같이 주절에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표현이 출현하지 않으면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가 사실로 해석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45)'과 같이 주절에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표현 ‘-을 것이-’가 출현하면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가 사실로 해석되는 경향이 없다.

조건적 양보 표지가 쓰인 문장의 다른 특징으로는 반복적, 습관적 사태에 대해 말하는 맥락에서는 드물게 발생하는 사태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다.

(46) 가. (코모도 드래곤에게) 한 번 물리면 50가지가 넘는 세균의 독이 온 몸에 퍼져 용케 도망을 치더라도 하루 이틀 만에 죽음에 이른다.
(서울신문: 2016-06-16)¹⁸⁾

나. 일본 동경이나 청국 북경에서 각각 자기 백성을 혹 감금, 징역에 처하거나 혹 교형, 참형에 처할지라도 외국사람의 생명재산에 관계만 없으면 서양 각국이 도무지 상관한 적이 없었거늘, 이번에 조선 사람 123 인을 심판한 사건을 인연하여 동서양 각국이 이렇듯 주의하는 것은 통상한 후로 처음 되는 일이더라 하였더라. (세종)

다. 문학과 재능을 겸비하여 쓸 만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당의 일인이 라고 지목되었으면 그 봉당 모두를 쓰지 않으려 하고, 정당이라 지

18) <1만3600개 섬들의 유혹... ‘환상의 섬 나라’ 인도네시아 관광>

- 목했으면 그 봉당 모두를 등용시키려 했다. (세종)
- 라. 전통요리 문헌에 보면 콩나물하나 다듬는데도 다음과 같은 정성을 들였던 것이다. (세종)
- 마. 그 당시 그녀는 남들이 보기에 건강하고 복스러운 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언제나 불만스러웠다. (세종)

(46가)에서는 도망을 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 ‘-더라도’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다. (46나)에서는 참형을 처한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 ‘-을지라도’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다. (46다)에서는 문학과 재능을 겸비하여 등용할 만한 사람이 적다는 점이 ‘-을지라도’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반면 사실적 양보 표지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다. 가령 사실적 양보 표지가 쓰인 (46라-마)의 각 문장들은 드물게 발생하는 사태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3.2.2. 첨가 초점사 양보의 의미 점검

첨가 초점사가 쓰인 조건적 양보문에서 첨가 초점사의 초점은 척도상의 끝값으로 알려져 있다(König 1986: 234, Haspelmath & König 1998: 565, König & Auwera 1988: 147).

- (47) Even if I try very hard, I won't manage. (König, & Auwera 1988: 147)

(47)에서 ‘even’의 초점 ‘매우 열심히 노력함’은 주절이 나타내는 사태 ‘그 일을 해내지 못함’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태이다(König & Auwera 1988: 147). 즉 ‘그 일을 해내지 못함’이라는 사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사태들의 순위를 매길 수 있는데, ‘even’의 초점인 ‘매우 열심히 노력함’은 그 순위가 가장 낮다. 초점과 대안집합들이 가지는 척도상의 순위는 그림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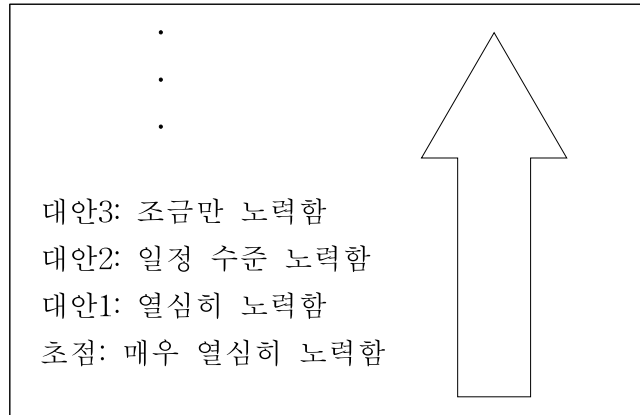


그림3. ‘그 일을 해내지 못함’을 발생시킬 가능성에 따른 순위

‘even’의 초점은 척도상의 끝값이므로 이때 대안집합은 ‘매우 열심히 노력함’보다 ‘그 일을 해내지 못함’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다른 모든 사태들이다. 그리하여 (47)의 양보절은 모든 사태를 망라하게 된다. 즉 (47)은 총망라성을 가지게 된다. 그 결과 (47)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해내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König(1986: 234)는 첨가 초점사가 쓰인 조건적 양보문, 이접 연결사가 쓰인 조건적 양보문, 자유 선택사가 쓰인 조건적 양보문이 공통적으로 총망라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사실상 조건적 양보의 정의에 총망라성의 개념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첨가 초점사 방책에 의한 조건적 양보는 척도 함축에 의해 총망라성을 가진다고 보고 있으므로, 첨가 초점사 방책에 의한 조건적 양보의 정의에는 척도성의 개념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총망라성이 조건적 양보의 필수적인 자질인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물론 ‘even’과 같은 척도적인 첨가 초점사가 쓰인 조건적 양보문에서 척도성이 없을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조건적 양보문은 척도 함축에 의해 얻어지는 총망라성 또한 반드시 가진다. 그러나 비척도적인 첨가 초점사에는 척도를 도입하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비척도적인 첨가 초점사가 쓰인 조건적 양보문이 가지는 척도성과 그로부터 생기는 총망라성은 맥락 등의 요인에 의해 추가되는 의미일 수도 있다. 비척도적인 의미가 척도적인 의미보다 단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비척도적인 첨가 초점사가 쓰인 조건적 양보문 중에서 척도성

과 총망라성이 없는 문장이 관찰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한국어의 ‘도’는 척도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그 대안집합이 항상 척도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박진호 2015: 407).

(48) 철수도 왔다. (박진호 2015: 407).

(48)은 철수가 왔고, 다른 사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드시 대안집합의 원소들과 초점 사이에 척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8)은 ‘심지어 가장 올 것 같지 않았던 철수가 왔다.’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단지 ‘철수가 왔다. 그리고 철수 외의 어떤 사람이 왔다.’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의 ‘도’가 쓰인 문장은 비척도적인 의미도 가진다.

명사구에 결합하는 ‘도’가 비척도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가 쓰인 조건적 양보문은 척도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even’과 같은 첨가 초점사가 쓰인 조건적 양보문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즉 한국어에는 첨가 초점사가 쓰였음에도 척도성을 가지지 않는 조건적 양보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래의 사례들이 첨가 초점사가 쓰였음에도 척도성을 가지지 않는 조건적 양보문으로 보인다.

(49) 가. (기대) 이 문은 당겨야(not-A) 열린다(not-B). <not-A이어야 not-B>

나. 이 문은 밀어도(A) 열린다(not-B).

(50) 가. (기대) 철수가 부탁해야(not-A) 들어줄 것이다(not-B). <not-A이어야 not-B>

나. 영희가 부탁해도(A) 들어줄 것이다(not-B).

앞서 <not-A이어야 not-B>로 기대를 표상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not-A이어야 not-B>의 형식을 가지는 기대 (49가)는 양보문 (49나)에 의해 부정될 수 있다. 그런데 ‘문을 뭍’이 대안인 ‘문을 당김’보다 ‘문이

열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더 낮다고 할 수 없다. 즉 (49나)는 첨가 초점사가 쓰인 조건적 양보문인데 척도성을 가지지 않는다. 첨가 초점사가 쓰인 문장이 총망라성을 가지는 원인은 끝값에서부터 척도 함축이 시작되기 때문이므로, 척도성을 가지지 않는 조건적 양보문에서는 총망라성도 필수적이지 않다. 가령 (50가)와 같은 기대를 양보문 (50나)로 부정할 경우, (50나)에서 초점은 '영희가 부탁함'이고 대안집합은 '영희가 부탁함' 외의 사태들이다. 그런데 (50나)는 가능한 사태들 모두를 대안집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즉 (50나)는 총망라성을 가지지 않는다. 가령 (50나)는 영수가 부탁해도 들어주는지에 대해서는 전달하는 바가 없다.

첨가 초점사가 쓰인 조건적 양보문은 많은 경우 척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첨가 초점사에 의해 형성된 조건적 양보 표지에 척도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가령 영어의 'even if'가 대표적이다. 한국어의 '-더라도', '-을지라도'에도 척도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첨가 초점사 방책에 의한 조건적 양보의 기본적인 모습은 척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49-50)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첨가 초점사가 쓰인 조건적 양보문에서 척도성은 필수적이지 않다. 그리고 첨가 초점사가 가지는 비척도적인 의미는 척도적인 의미보다 단순하다. 따라서 척도성을 가지지 않는 조건적 양보문은 보다 단순하고 기본적인 조건적 양보를 나타내는 문장들이고, 척도성을 가지는 조건적 양보문은 기본적인 조건적 양보에 척도가 추가된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들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3.2.3. 첨가 초점사의 역할

첨가 초점사 방책에 의한 조건적 양보의 기본적인 모습이 비척도적인 것이라고 주장할 때 첨가 초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문제가 된다. 조건적 양보의 정의에 총망라성을 포함하는 관점에서는 첨가 초점사의 역할이 분명하다. 첨가 초점사는 척도를 도입하며, 이때 발생하는 척도 함축에 의해 문장은 총망라성을 가지게 된다. 즉 첨가 초점사는 조건적 양

보문에 총망라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첨가 초점사 방책에 의한 조건적 양보에서 척도성과 총망라성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할 경우 조건적 양보를 표현할 때 첨가 초점사가 출현하는 원인을 척도성이나 총망라성에 의존하여 설명할 수 없으므로 다른 설명이 필요해진다.

본고에서는 첨가 초점사의 역할이 양보의 핵심 의미인 비관여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오직’의 의미를 가지는 단문의 의미를 풀어 쓴 것을 참고하여 ‘오직’의 의미를 가지는 기대의 의미를 풀어 쓴 후, ‘오직’을 부정하는 것과 비관여성의 관계를 보이하고자 한다.

(51) 가. 철수만 합격하였다.

나. 철수가 합격하였다.

다. 철수 외에 다른 사람은 합격하지 않았다. (임동훈 2015: 353)

(52) 가. 철수가 밥을 줘야 그 강아지는 밥을 먹는다.

나. 철수가 밥을 주는 상황과 그 강아지가 그 밥을 먹는 상황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다. 철수가 밥을 주는 상황 외에는 그 강아지는 밥을 먹지 않는다.

(53) 가. 철수 외의 사람이 밥을 줘도 그 강아지는 밥을 먹는다.

나. 철수 외의 사람이 밥을 줘야 그 강아지는 밥을 먹는다.

(51가)의 의미는 (51나-다)로 풀어 쓸 수 있다(임동훈 2015: 353). ‘만’이 사용된 (51가)는 ‘오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51가)에서 ‘오직’을 제외한 의미는 (51나)가 나타내고, ‘오직’의 의미는 (51다)가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오직’의 의미를 가지는 (51가)를 (51나-다)로 풀어 쓸 수 있는 것과 같이 ‘오직’의 의미를 가지는 (52가) 또한 (52나-다)로 풀어 쓸 수 있다. (52나)는 (51나)에 대응한다. (51나)는 어떤 사람이 철수라는 인물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합격한 사람에 해당함을 나타낸다. (52나)는 철수가 밥을 주는 상황과 강아지가 밥을 먹는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51가)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를 나타내는 반면 (52가)는 조건을 나타내기 때문에 (52나)를 두 사태가 실제로 동시에 발생했다

고 기술하지 않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기술하였다. (52다)는 (51다)에 대응한다. 즉 (51다)가 ‘오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같이 (52다)도 ‘오직’의 의미를 나타낸다.

(52가)는 (53가)에 의해서 부정될 수도 있고 (53나)에 의해서 부정될 수도 있다. (53가)는 (52다)의 의미를 부정한다. 기대가 가지는 의미 요소인 (52다)를 부정하므로 (53가)는 기대 (52가)를 부정한다. 그런데 (53가)는 ‘오직’의 의미를 나타내는 (52다)는 부정하지만 (52나)는 긍정한다. 즉 (53가)가 부정하는 것은 ‘오직’의 의미뿐이다. (53나) 또한 (52다)를 부정하기는 한다. 그러나 (53나)는 ‘오직’의 의미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53나)가 ‘오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은 (52나)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즉 (53나)는 ‘오직 철수 외의 사람이 밥을 줄 때에만 강아지가 밥을 먹는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52나)를 부정한다. ‘오직’의 의미를 부정하는 (53가)가 비관여성을 나타내는 반면 ‘오직’의 의미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53나)는 비관여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즉 (53나)는 (52가)가 나타내는 관여성을 부정하지만 한편으로 다른 관여성을 나타낸다.

요컨대 기대가 가지는 ‘오직’의 의미를 부정할 때 기대를 부정하는 문장은 비관여성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오직’의 의미는 첨가 초점사에 의해 부정된다. ‘오직’의 의미와 대안집합을 생성하는 ‘첨가’의 의미는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건적 양보의 표현에서 첨가 초점사가 하는 역할은 ‘오직’의 의미를 부정하여 비관여성을 나타내는 데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첨가 초점사의 역할을 ‘오직’의 의미 부정으로부터 생기는 비관여성과 연관시킬 때 척도성이나 총망라성에 의존하지 않고도 조건적 양보의 표현에 첨가 초점사가 쓰이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첨가 초점사의 역할을 ‘오직’의 의미 부정으로부터 생기는 비관여성과 연관시키는 주장은 첨가 초점사 방책에 의한 조건적 양보가 척도성을 가지기도 하는 현상과 상충되지 않는다.

(54) 가. (기대) 회원 카드가 있어야 포인트를 정립할 수 있다.

나. 심지어 회원 카드가 없더라도/없을지라도 포인트를 정립할 수 있다

첨가 초점사가 쓰인 문장이 비척도적인 의미를 가질 때 ‘오직’의 의미를 부정할 수 있는 이유는 대안집합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척도적인 첨가 초점사가 쓰인 문장 역시 대안집합을 생성한다. 따라서 (54가)의 기대는 척도적인 의미를 가지는 (54나)로 부정될 수 있다.

첨가 초점사의 역할을 ‘오직’의 의미 부정으로부터 생기는 비관여성과 연관시키는 주장은 사실적 양보 표지가 보이는 현상과도 상충되지 않는다. 사실적 양보를 나타내는 표지에서 첨가 초점사는 필수적이지 않다. 가령 한국어의 사실적 양보 표지에는 ‘-은데도’, ‘-음에도’, ‘-고도’, ‘-어도’처럼 첨가 초점사 ‘도’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도 있지만 ‘-지만’, ‘-으나’처럼 첨가 초점사가 없는 것들도 있다. 사실적 양보 표지 형성에 첨가 초점사의 참여가 필수적이지 않은 원인은 사실 사태로 기대를 부정할 때에는 첨가 초점사를 이용하여 ‘오직’의 의미를 부정하지 않아도 비관여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55) 가. (기대) 눈이 오면 등산을 가지 않는다.

나. 눈이 오더라도 등산을 갈 것이다.

다. 눈이 오면 등산을 갈 것이다.

(56) 가. 눈이 오기는 하지만/하나 등산을 갈 것이다.

나. 눈이 오는데도 등산을 갔다.

(55가)와 같은 기대를 조건적 양보로 부정할 경우, 첨가 초점사 ‘도’가 없으면 비관여성을 나타낼 수 없다. ‘도’가 쓰인 (55나)는 ‘눈이 옴’이 ‘등산을 가지 않음’에 비관여적임을 나타낸다. 반면 ‘도’가 없는 (55다)는 ‘눈이 옴’이 ‘등산을 감’에 관여적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56가)에서와 같이 사실 사태를 사용하여 기대를 부정할 경우 ‘도’ 없이도 비관여성을 나타낼 수 있다. 즉 (56가)에서는 ‘눈이 옴’과 ‘등산을 감’ 사이의 관여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실 사태로 기대를 부정할 경우 단순히 두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비관여성을 나타낼 수 있다. 물론 사실 사태를 사용하여 기대를 부정할 때에 (56나)와 같이 ‘도’가 출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조건적 양보의 경우와 동일하게 ‘도’를 사용하여 ‘오직’의 의

미를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건적 양보문에 ‘도’가 쓰일 때 문장이 척도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적 양보문에서도 ‘도’가 쓰일 때 문장이 척도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56나)의 경우 ‘심지어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등산을 갔다.’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3.2.4. 맥락적인 끝값

마지막으로 점검할 첨가 초점사 방책의 의미는 끝값에 대한 것이다. 앞서 첨가 초점사 방책에 의한 조건적 양보가 척도성을 가질 때, 초점은 척도상의 끝값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견해가 있다. Dancygier(1988: 112-113)에서는 척도적인 첨가 초점사가 척도상의 끝값만을 초점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57) I won't work overtime even if they pay for it. (Dancygier 1988: 113)

Dancygier(1988: 113)에 따르면 (57)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반드시 척도상의 끝값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쉬는 날을 주면 초과 근무를 하겠다.’와 같은 문장으로 ‘초과 근무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쉬는 날을 줌’은 ‘비용을 지불함’보다 ‘초과 근무를 하지 않음’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더 낮은 사태이다. 즉 ‘비용을 지불함’이 끝값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Dancygier(1988)에서는 ‘even’의 초점이 끝값이라는 주장을 견지하기 위해 맥락적인 끝값을 상정할 수 있긴 하나, 맥락을 끌어들이는 경우 끝값이라는 개념을 유지할 이유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척도적인 첨가 초점사의 초점은 항상 끝값이며, 이때 끝값은 맥락적인 끝값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끝값의 정의에 맥락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끝값과 관련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이환묵 1982: 115-118).

(58) 가. 촘스키도 변형문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이환묵 1982: 116)

나. 철수도 변형문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이환묵 1982: 116)

(58)에서 촘스키나 철수를 끝값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청자가 촘스키와 철수를 변형문법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이환묵 1982: 116). 언어학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촘스키를 끝값으로 파악하고 (58가)를 변형문법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석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촘스키를 끝값으로 파악한 사람이 철수 또한 끝값으로 파악하리라 단언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끝값의 결정에 맥락이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맥락적인 끝값은 실재한다. 불특정적인 지시체를 가지는 기대를 부정할 때, 초점이 끝값임은 분명한데 실제 세계의 물리적 끝값은 아닌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초점이 맥락적인 끝값임을 보여준다. 불특정적인 지시체를 가지는 진술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총망라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초점이 맥락적인 끝값인 사례를 보이고자 한다.

불특정적인 지시체를 가지는 진술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총망라성이 필요하다.

(59)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

(60) 가. 아무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 철수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 철수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59)에서 들어온 사람은 불특정적이다. 즉 (59)는 들어온 사람이 있음을 전달하고 있으나 그것이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달하는 바가 없다. 그런데 (60가)는 불특정적인 지시체를 가지는 (59)를 부정할 수 있다. (60가)에서는 ‘아무도’라는 표현에 의해 모든 사람이 망라된다. 때문에 (59)에서 들어온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특정되고 있지 않아도 (60

가)는 (59)를 부정할 수 있다. 반면 (60나)는 (59)를 부정할 수 없다. (60나)는 특정적인(한정적인) 하나의 지시체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므로 불특정적인 지시체를 가지는 (59)를 부정하지 못한다. 즉 철수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진술은 누군가 들어왔다는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60다)의 경우 척도적인 의미를 가질 때에는 (59)를 부정할 수 있다. 즉 철수가 집에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일 때에는 (59)를 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척도 함축에 의해 총망라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척도적인 의미로 쓰이면서 단순히 대안집합만을 생성할 때에는 (60나)처럼 (59)를 부정할 수 없다. 가령 단순히 영희가 들어오지 않았고 철수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때에는 (59)를 부정할 수 없다.

요컨대 불특정적인 지시체를 가지는 진술은 총망라성을 가지는 진술로만 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첨가 초점사가 쓰인 조건적 양보문이 척도성을 가질 때 아래의 사례에서와 같이 불특정적인 지시체를 가지는 기대를 부정할 수 있다.

(61) 가. 대화자 1: 술 잘 마시는 철수도 취하는 때가 있겠지. (모든 경우를 살펴보면 철수가 취하는 때가 있다.)

나. 대화자 2: 철수는 아침까지 마셔도 취하지 않을 걸.

(61가)는 철수가 술에 취하는 때가 존재한다는 점을 전달하지만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전달하는 바가 없다. 즉 (61가)에서 철수가 취하는 때는 불특정적이다. 그리고 철수가 취하는 때가 불특정적이므로, 양보절이 모든 가능한 경우를 망라하지 않는 양보문으로는 (61가)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61가)는 (61나)에 의해 부정된다. 따라서 (61나)의 양보절은 모든 가능한 경우를 망라하고 있다. 그런데 (61나)의 양보절이 가능한 모든 가능한 경우를 망라하기 위해서는 초점이 끝값이어야 한다. 총망라성은 끝값에서부터 시작되는 척도 함축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이다. 즉 척도 함축은 끝값만이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장이 총망라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척도 함축은 끝값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침까지 마심’은 술을 늦게까지 마시는 척도의 실제 세계의 물리적인 끝값은 아니다. 즉 술은 점심까지도 마실 수 있고, 그보다 더 오래

도 마실 수 있다. 따라서 끝값이면서 실제 세계의 물리적인 끝값이 아닌 (61나)의 ‘아침까지 마심’은 맥락적인 끝값이다.

3.3. 요약

제3장에서는 첨가 초점사 방식을 살펴보았다. 양보는 첨가 초점사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첨가 초점사 ‘도’가 연결어미에 결합하여 양보 표지를 형성한다. 그리고 ‘도’ 결합형 연결어미들은 사실적 양보를 나타내기도 하고 조건적 양보를 나타내기도 한다. 조건적 양보를 나타내는 표지가 쓰인 문장에서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가 사실적으로 해석되기도 하나, 이러한 현상은 범언어적으로 확인된다. 다만 ‘-어도’가 쓰인 문장의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가 사실적으로도 해석되는 원인은 ‘-어도’가 다의어이기 때문이다. 첨가 초점사 방식의 의미 점검에 있어 본고에서 주목한 것은 척도성과 총망라성이 첨가 초점사 방식에 의한 조건적 양보의 필수적인 자질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첨가 초점사 방식에 의한 조건적 양보는 척도성과 총망라성을 필수적으로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즉 양보절은 척도상의 끝값을 초점으로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척도 함축에 의해 양보절은 모든 가능한 사태를 망라한다고 알려져 왔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첨가 초점사가 쓰인 조건적 양보문 중에서 척도성과 총망라성이 없는 문장들이 확인된다. 한국어에서 보이는 이러한 언어 현상은 첨가 초점사 방식에 의한 조건적 양보의 기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현상임을 논증하였다. 즉 첨가 초점사는 기대가 가지는 ‘오직’의 의미를 부정하는 역할을 하며 이로부터 문장은 비관여성을 나타내는 양보를 표현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제3장에서는 첨가 초점사가 척도적인 의미로 쓰일 때 초점은 항상 끝값임을 주장하였다. 첨가 초점사가 척도적인 의미로 쓰였음에도 초점이 끝값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다. 그러나 이는 맥락적인 끝값의 개념을 설정할 때 해소된다. 맥락적인 끝값의 개념은 언어 현상을 설명할 때 필요하다. 그리고 불특정적인 지시체를 가지는 기대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초점이 끝값임은

분명한데, 실제 세계의 물리적 끝값은 아닌 사례를 통해 맥락적인 끝값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4. 이접 양보

이접 방책의 한 종류에는 A와 not-A가 이접 연결사에 의해 연결되는 것이 있다. 그런데 첨가 초점사 또한 이와 유사하게 A와 not-A를 연결할 수 있다. 그리하여 첨가 초점사에 의해 A와 not-A가 연결되어 양보를 표현하는 것들을 첨가 초점사 방책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접 연결사에 의해 A와 not-A가 연결되는 것들과 같은 부류로 분류하는 논의가 있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첨가 초점사에 의해 A와 not-A가 연결되는 것들을 첨가 초점사 방책에 속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또한 제4장에서는 이접 방책에 의한 양보에서 총망라성은 필수적이지 않음을 주장할 것이다. 이접 연결사가 쓰인 양보문은 총망라성을 가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때의 총망라성은 이접 연결사가 쓰인 양보문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부정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4.1. 이접 연결사 의해 형성되는 양보 표지

기대가 조건 형식으로 표상되는 것과 같이 조건적 양보 또한 조건 형식으로 표상된다. 다만 조건적 양보의 표상에는 이접이 사용된다.

- (62) 가. (기대) 그 그릇은 떨어지지 않아야(not-A) 깨지지 않는다(not-B).
 <not-A이어야 not-B>
 나. 그 그릇은 떨어져도(A) 깨지지 않을 것이다(not-B). <not-B이면 not-A
 이거나 A>

기대 (62가)를 부정하는 양보문 (62나)는 ‘떨어지지 않음’이 ‘깨지지 않음’의 필요조건이 아님을 나타낸다. 즉 (62나)는 오직 그릇이 떨어지지 않을

때에만 깨지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하지만 그릇이 떨어지지 않은 동시에 깨지지도 않은 상황이 가능하다는 점은 긍정한다. 그리고 (62나)가 가지는 이러한 의미는 이접을 요소로 하는 조건 형식 <not-B이면 not-A이거나 A>로 표상할 수 있다. 표상 또한 오직 not-A일 때만이 not-B라는 점은 부정하면서 not-A이고 동시에 not-B인 상황이 가능하다는 점은 긍정한다. 기대가 조건 형식을 유지하는 한 다양하게 표상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조건적 양보 또한 조건 형식을 유지하고 이접을 요소로 하는 한 다양하게 표상될 수 있다. 가령 (62나)와 같은 조건적 양보문은 필요조건을 종속절에 언어화하는 ‘-어야’를 사용하여 <not-A이거나 A이어야 not-B>로 표상할 수 있다.¹⁹⁾

조건적 양보의 표상에 이접이 사용된 것과 같이 자연 언어에서도 이접은 조건적 양보를 나타내는 데 쓰인다. 이접 연결사는 조건적 양보를 표현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63) 독일어

Ob ich gewinne oder verliere, Badminton macht mir Spass.
 whether I win or lose badminton makes me fun
 ‘Whether I win or lose, Badminton is fun.’ (Haspelmath & König 1998: 596)

(64) 아일랜드어

Cé acu a chuirfidh sé nó a bheidh grian ann,
 which of:them REL rain it or REL be:FUT:3SG sun in:it
 rachaimid amach.
 go:FUT:1PL outside
 ‘whether it rains or the sun shines, we’ll go outside’ (Haspelmath & König 1998: 596)

19) 제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건적 양보에서 총망라성은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표상의 이접 부분을 ‘not-A이거나 A’로 기술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할 수 있다. 조건적 양보를 정확히 표상하려면 이접 부분을 ‘not-A의 구성원이거나 A’라고 하고 not-A가 하나의 원소만을 가지는 집합일 수 있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기술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표상을 단순화하고자 한다.

(63)에서는 이접 연결사 ‘oder’가 ‘내가 이김’과 ‘내가 짐’을 연결하고 (64)에서는 이접 연결사 ‘nó’가 ‘비가 옴’과 ‘햇살이 비침’을 연결한다. 이와 같이 이접 연결사로 어떤 사태와 그 사태의 부정을 연결함으로써 어떤 사태가 다른 사태의 발생에 비관여적이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비관여적인 사태는 양보절을 구성하는 두 이접지 중에 어떤 것으로도 언어화될 수 있다.

(65) 가. Whether he needed the money or not, I did not lend him any.
(Rudolph 1996: 30)

나. Whether he needed the money or not, I lent him any. (Rudolph 1996: 30)

다. 철수의 말이 거짓이든(A) 거짓이 아니든(not-A) 지금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다’. 철수의 말이 거짓이 아니든(not-A) 거짓이든(A) 지금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65가)에서는 ‘그가 돈이 필요함’이 ‘내가 돈을 빌려줌’에 비관여적임을 나타내는데 ‘그가 돈이 필요함’은 이접 연결사 앞에 언어화되어 있다. 반면 (65나)에서는 ‘(그가 돈이 필요하지) 않음’이 ‘내가 돈을 빌려 주지 않음’에 비관여적임을 나타내는데 ‘(그가 돈이 필요하지) 않음’은 이접 연결사 뒤에 언어화되어 있다. 두 이접지의 자리도 바뀔 수 있다. 가령 (65다)는 (65다)’과 같이 바뀌 쓸 수 있다.

이접 연결사는 A와 not-A만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접 연결사에 의해 여러 A들이 열거될 수도 있다. 이때 양보절은 모든 사태를 망라하기도 한다.

(66) 사업에 실패하든(A①) 사람들에게 비난 받든(A②) 철수는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66)과 같이 여러 A들이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접 연

결사가 쓰인 양보문은 총망라성을 내재하지 않는다. 즉 이접 방책에 의한 양보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태가 다른 사태에 비관여적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A①, A②와 같이 여러 A들이 열거될 경우 양보절은 모든 사태를 망라하기도 한다. 가령 (66)은 ‘사업에 실패함’과 ‘사람들에게 비난 받음’ 두 사태가 ‘철수가 절망함’에 비관여적임을 나타낸다. 그런데 (66)은 철수가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무슨 일이 있더라도 철수는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를 의미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이접문에 쓰이는 ‘-든지’, ‘-거나’, ‘-으나’가 양보문에도 쓰인다(윤평현 1989: 57).

(67) 가. 당신이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간에) 음식값은 당신이 치러야 한다.
(윤평현 1989: 57)

나. 밋거나 곁거나 (간에) 네 아내가 아니냐? (윤평현 1989: 57)

다. 그는 오나 가나 (간에) 말썽이다. (윤평현 1989: 57)

(67가)에서는 ‘-든지’에 의해서, (67나)에서는 ‘-거나’에 의해서 양보가 표현되고 있다. (67다)에서는 ‘-으나’에 의해서 양보가 표현되고 있다.

A와 not-A는 이접 연결사뿐만 아니라 첨가 초점사에 의해서도 연결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A어도 not-A어도’와 같이 ‘도’에 의해서 A와 not-A가 연결될 수 있다.

(68) 가. 공부를 하든지(A), 안 하든지(not-A) 성적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나. 공부를 해도(A), 안 해도(not-A) 성적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접 연결사에 의해 (68가)와 같이 A와 not-A가 연결될 수 있는 것처럼 첨가 초점사에 의해서도 (68나)와 같이 A와 not-A가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첨가 초점사에 의해 A와 not-A가 연결된 문장은 이접 연결사에 의해 A와 not-A가 연결된 문장과 매우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때문에 (68나)와 같이 첨가 초점사가 A와 not-A가 연결하는 것을 ‘공부를 해도(A), 성적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와 같이 ‘A + 첨가 초점사’의

모습을 가지는 것과 같은 방책이라고 보지 않고 (68가)와 같이 이접 연결사가 A와 not-A를 연결하는 것과 같은 방책으로 보기도 한다. 즉 (68나)와 같은 경우를 첨가 초점사가 사용되었지만 제3장에서 본 첨가 초점사 방책에 의한 양보와는 이질적인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69) 터키어

Yağmur yağ-sa da güneşli ol-sa da
 rain rain-CODN even sunny be-COND even
 dışarı-ya gid-eceğ-iz
 outside-DAT go-FUT-1PL

‘Whether it rains or the sun shines, we will go outside’ (Haspelmath & König 1998: 595)

(70) 루마니아어

Și dacă plouă și dacă e soare, vom ieși.
 even if rains even if is sun FUT:1PL go.out

‘Whether it rains or the sun shines, we will go outside’ (Haspelmath & König 1998: 595)

(69)에서는 첨가 초점사 ‘da’가 A와 not-A를 연결하고 있고 (70)에서는 첨가 초점사 ‘și’가 A와 not-A를 연결하고 있다. Haspelmath & König(1998: 595)에서는 (69-70)에서와 같이 첨가 초점사에 의해 A와 not-A가 연결된 것들은 제3장에서 살펴본 첨가 초점사 방책에 의한 양보와는 다른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이접 연결사에 의해 A와 not-A가 연결된 것들과 같은 것으로 보고 A와 not-A가 첨가 초점사에 의해 연결되든 이접 연결사에 의해 연결되든 ‘대안 조건적 양보’라 불리는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를 따라 한국어의 ‘A어도 not-A어도’ 또한 이접 연결사에 의해 A와 not-B가 연결되는 것들과 같은 방책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A어도 not-A어도’는 첨가 초점사 방책의 한 종류라고 간주할 것이다. 자세히 말하면 아래와 같다.

첨가 초점사 방책에 의한 조건적 양보에서 척도성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A + 첨가 초점사, not-A + 첨가 초점사’를 첨가 초점사 방책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척도적인 첨가 초점사는 척도상의 끝값을 초점으로 하므로 척도적인 첨가 초점사가 사용되면서 A와 not-A가 동시에 언어화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71) 가. *철수조차(A) 다른 사람조차(not-A) 합격했다.

나. 철수도(A) 다른 사람도(not-A) 합격했다.

가령 (71가)에서 척도적인 의미를 가지는 ‘조차’는 끝값을 초점으로 한다. 즉 철수는 합격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이다. 그런데 척도적인 의미를 가지는 ‘조차’를 사용하여 철수와 철수 외의 다른 사람을 언어화하면 (71가)와 같이 어색한 문장이 된다. A와 not-A를 언어화하기 위해서는 비척도적인 의미를 갖기도 하는 첨가 초점사 ‘도’를 사용하여 (71나)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명사구에 첨가 초점사가 결합하는 (71)을 볼 때, 첨가 초점사 방책에 의한 조건적 양보에서 척도성이 필수적이라면 첨가 초점사에 의해 A와 not-A가 같이 언어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첨가 초점사 방책에 의한 조건적 양보에서 척도성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A와 not-A가 언어화된 ‘A + 첨가 초점사, not-A 첨가 초점사’는 첨가 초점사 방책이라고 하기 곤란하다. 그리고 첨가 초점사에 의해 A와 not-A가 연결되는 양보문과 이접 연결사에 의해 A와 not-A가 연결되는 양보문은 그 모습이나 의미가 유사하다. 그러므로 ‘A + 첨가 초점사, not-A 첨가 초점사’를 이접 방책과 같은 부류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첨가 초점사 방책에 의한 조건적 양보가 척도성을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본고의 관점에서는 ‘A + 첨가 초점사, not-A 첨가 초점사’를 첨가 초점사 방책에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 (71나)의 명사구와의 결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비척도적인 의미로 쓰인 첨가 초점사가 사용될 경우 A와 not-A가 동시에 언어화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A어도, not-A어도’는 첨가 초점사 방책의 하나로 볼

것이다.

4.2. 이접 양보의 의미

이접 연결사가 쓰인 양보문 중에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가 사실로 해석되는 문장들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접 방책에 의한 양보는 기본적으로 조건적 양보라고 볼 것이다. 한편 A와 not-A가 이접 연결사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양보문은 총망라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불특정적인 지시체를 가지는 기대를 부정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접 방책에 의한 양보에는 총망라성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4.2.1. 이접 양보문의 사실성

이접문이 사실성에 대해 중립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접 연결사가 쓰인 양보문 또한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의 사실성에 대해 중립적이다.

(72) 가. 철수는 집에 있거나 학교에 있다.

나. 철수의 행동이 고의였든 아니든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접문 (72가)는 철수가 집에 있는지에 대해서 전달하는 바가 없고, 학교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달하는 바가 없다. 즉 사실성에 대해서 중립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접 연결사가 쓰인 양보문 (72나) 또한 철수의 행동이 고의인지에 대해서 중립적이다. 사태의 사실성에 대해 중립적인 것은 이접문의 특징이므로 이접 연결사가 쓰인 양보문에서 그러한 의미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접 연결사가 쓰인 양보문이 사실성을 가지는 말뭉치 용례가

확인된다.

- (73) 가. 대로변으로 완전히 빠져나온 트럭은 달려오던 차들이 경적을 울리
거나 말거나 그대로 내뺐다. (세종)
나. 정작 막둥이 본인은 자신이 놀림감이 되든 말든 별다른 관심을 보
이지 않았다. (세종)
다. 애가 울든 말든 내팽개쳐두고 잠만 자고 있으니.... (세종)

(73)에서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는 사실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73가)에서 차는 경적을 울린 것으로 해석되고, (73나)에서 막둥이는 놀림감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73다)에서 애는 운 것으로 해석된다.

조건적 양보 표지는 사실성에 대해 중립적인 까닭에 조건적 양보 표지가 쓰인 문장에서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가 사실인 것으로 해석되는 현상이 있음을 앞서 제3장에서 보았다. 그리고 이접문은 본래 사태의 사실성에 대해 중립적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접 연결사가 쓰인 양보문에서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가 사실로 해석되는 현상 또한 조건적 양보문이 보이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²⁰⁾ 즉 이접 방책에 의한 양보는 조건적 양보로 보고자 한다.

4.2.2. 이접 양보의 의미 점검

이접 연결사가 쓰인 양보문에서 양보절은 모든 사태를 망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önig 1986: 231, König, & Auwera 1988: 107).

- (74) Whether he is right or not, we must support him. (König 1986: 231)

20) 이접 연결사가 쓰인 양보문에서 양보절이 사실로 해석되는 현상은 특정한 환경에서 주로 나타나는 듯하다. ‘말-’에 의해 not-A가 표현되고, 양보절과 주절의 주어가 다르고, 주절의 주어가 유정물일 경우 사실적으로 해석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73)의 문장들도 그러한 특징을 가진다.

(74)는 ‘그가 옳음’과 그것의 부정이 ‘or’에 의해 연결되어 양보절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때 양보절은 모든 사태를 망라한다고 한다. 즉 (74)는 ‘어떤 경우에도 그를 지원해줘야 한다.’의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A와 not-A는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망라하므로 A와 그것의 부정 not-A로 구성된 양보절이 모든 사태를 망라한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A와 not-A가 언어화된 문장이 항상 총망라성을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75) 철수가 오고 있는지(A) 아닌지(not-A) 알고 있니?

(75)에서는 ‘철수가 오고 있음(A)’과 그것의 부정이 내포절에 언어화되어 있지만 내포절은 모든 가능한 사태를 망라하고 있지는 않다. 즉 (75)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니?’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를 고려할 때 A와 not-A가 이접 연결사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양보절이 모든 사태를 망라하고 있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듯하다.

앞서 불특정적인 지시체를 가지는 진술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양보문이 총망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보았다. 따라서 A와 not-A가 이접되어 있는 양보문이 총망라성을 지닌다면 불특정적인 지시체를 가지는 진술을 부정할 수 있을 것이 예상된다.

(76) 철수도 늦게 일어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모든 경우를 살펴보면 철수가 늦게 일어나는 상황이 존재한다.)

(77) 가. 철수는 새벽 세 시에 자더라도 일찍 일어날 걸.

나. 철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찍 일어날 걸.

다. 철수는 새벽 세 시에 자든 새벽 세시에 자지 않든 일찍 일어날 걸.

라. 철수는 새벽 세 시에 자든 잔뜩 취해서 자든 알람이 울리지 않든 일찍 일어날 걸.

(76)은 철수가 어떤 상황에서 늦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전달하는 바가 없다. 즉 불특정적인 어떤 상황에서 철수가 늦게 일어나는 경우가 존재

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양보절이 모든 사태를 망라하는 양보문이라면 (76)과 같은 문장 또한 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첨가 초점사가 쓰였고 척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77가)와 자유 선택사가 쓰인 (77나)는 (76)을 부정할 수 있다. (77가)가 (76)을 부정할 수 있는 원인은 (76가)가 척도 함축에 의해 총망라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즉 (77가)는 척도상의 (맥락적인) 끝값인 ‘새벽 세 시에 잠’을 초점으로 한다. 그리고 척도 함축에 의해 끝값보다 ‘일찍 일어남’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사태들 모두가 ‘일찍 일어남’의 발생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77나)도 (76)을 부정할 수 있다. (77나)와 같이 자유 선택사가 쓰인 양보문은 직관적으로 총망라성을 가진다. 그러나 (77다)와 같이 A와 not-A가 연결되어 있는 양보문은 불특정적인 지시체를 가지는 (76)과 같은 문장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접 연결사가 쓰인 양보문이라고 해도 여러 A들이 열거되는 양보문 (77라)는 (76)을 부정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접 연결사에 의해 여러 A들이 열거될 경우 양보절은 모든 사태를 망라할 수 있다. 때문에 (77라)가 (76)을 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아래와 같이 지시체가 특징적인 진술을 부정할 때 보이는 현상과는 대조적이다.

(78) 철수도 새벽 세 시에 자면 늦게 일어날 것이다.

(79) 가. 철수는 새벽 세 시에 자더라도 일찍 일어날 걸.

나. 철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찍 일어날 걸.

다. 철수는 새벽 세 시에 자든 새벽 세 시에 자지 않든 일찍 일어날 걸.

라. 철수는 새벽 세 시에 자든 잔뜩 취해서 자든 알람이 울리지 않든 일찍 일어날 걸.

(78)은 (76)과 지시체의 특정성에 있어서만 차이를 가진다. 즉 (76)에서는 철수가 자는 시간이 불특정적인 반면 (78)은 자는 시간이 ‘세 시’로 특정되어 있다. (79가-라)는 (77가-라)와 동일한 문장들이다. 그런데 (78)은 (79다)를 포함한 (79)의 모든 문장에 의해 부정될 수 있다.

어떤 양보문이 (76)과 같이 불특정적인 지시체를 가지는 진술을 부정한다면 그 양보문은 총망라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지만 불특정적인 지시체를 가지는 진술을 부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양보문에 총망라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76)을 부정할 수 없는 (77다 = 79다)가 (76)과는 특정성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78)을 부정할 수 있다는 점은 (77다 = 79다)가 총망라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주장의 개연성을 높여준다.

요컨대 불특정적인 지시체를 가지는 진술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A와 not-A가 연결되어 있는 양보문은 총망라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첨가 초점사 방책에 의한 양보에서 총망라성이 필수적이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접 방책에 의한 양보에서도 총망라성은 필수적이지 않은 듯하다.

그런데 이접 연결사가 쓰인 양보문이 총망라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80) 영화가 오는 말든 집에 갈 거야.

이접 연결사가 쓰인 양보문 (80)은 하나의 사태 ‘영화가 옴’이 ‘(화자가) 집에 가지 않음’에 비관여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화자는) 집에 간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A와 not-A가 이접 연결사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양보문이 척도 함축에 의해 총망라성을 가지게 된 것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때의 척도는 A와 not-A가 이접 연결사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양보문에 내재되어 있는 아니라 기대에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즉 이접 연결사가 쓰인 양보문은 척도성을 가지는 기대를 부정함으로써 척도적인 첨가 초점사가 쓰인 양보문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81) 가. 철수는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든 말든(A1) 영화와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not-B).

나. (기대) 철수는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면(A1) 영화와 헤어질 것이다(B).

본래 (81가)는 ‘부모님께서 반대하심’이라는 어떤 사태 A1이 ‘영희와 헤어짐’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미만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81나)의 ‘부모님께서 반대하심’이 아래와 같은 척도의 끝값에 위치한다고 가정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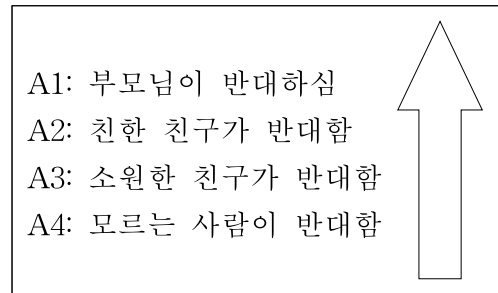


그림4. ‘영희와 헤어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순위

A1은 ‘영희와 헤어짐’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태이고, A4는 그러한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태이다. 이때 A1이 ‘영희와 헤어짐’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 부정된다면, 척도 함축에 의해 A2, A3, A4가 ‘영희와 헤어짐’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또한 부정된다. 즉 척도적인 의미를 가지는 첨가 초점사가 쓰인 조건적 양보문이 척도 함축에 의해 총망라성을 가지게 된 것과 같이, 이접 연결사가 쓰인 조건적 양보문이 척도상의 끝값에 위치하는 사태를 요소로 하는 기대를 부정할 때 총망라성이 생긴다.

이접 연결사가 쓰인 양보문이 가지는 총망라성은 문장 외적 요인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접 연결사가 쓰인 양보문은 총망라성을 가지기도 하고 가지지 않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82) 가. 대화자1: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영희가 지금 온다는데, 안 남아 있을 거야? (기대: 영희가 오면 남는다.)

나. 대화자2: 영희가 오든 말든 여기 안 있을 거야.

가'. 대화자1: 영희가 지금 온다는데, 안 남아 있을 거야? (기대: 영희가 오면 남는다.)

나'. 대화자2: 영희가 오든 말든 여기 안 있을 거야.

(82나)는 ‘어떤 경우에라도 여기에 있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82가)에서 나타나는 기대를 부정하는 과정에서 (82가)가 가진 ‘영희가 옴’이 끝값으로 위치하는 척도를 참조하여 (82나)는 총망라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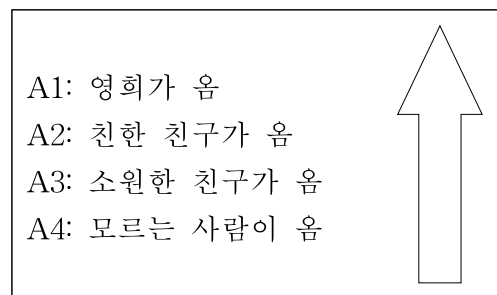


그림5. ‘여기에 남음’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순위

이 경우에도 A1이 ‘여기에 남음’을 일으킨다는 점이 부정되므로 A2, A3, A4가 ‘여기에 남음’을 일으킨다는 점이 모두 부정된다. 반면 (82가)의 ‘영희가 옴’이 척도상에 위치하는 사태가 아니라고 할 때, 이를 부정하는 (82나)는 (82나)와는 달리 척도를 참조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영희가 옴’이라는 사태가 ‘여기에 남음’이라는 사태에 비관여적이라는 것만을 나타낸다.

요컨대 본고에서는 A와 not-A가 이접 연결사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양보문이 가지는 총망라성은 척도 함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며 이때 척도 함축은 기대를 부정하는 과정에서 생긴다고 본다. 이러한 설명은 (77다)가 (76)을 부정하지 못하는 현상과도 정합적인 것으로 보인다. 즉 (77다)를 통해 (76)의 부정을 시도할 경우, (76)에서는 지시되는 특정한 사태가 없으므로 특정한 사태가 위치하는 척도도 없다. 즉 (77다)가 참조할 척도가 없다. 그리하여 (77다)는 척도 함축을 가지지 못하므로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총망라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기대 (76)을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4.3. 요약

한국어에서는 이접 연결사 ‘-든지’, ‘-거나’, ‘-으나’에 의한 표현들이 이접 방식을 담당한다. ‘A어도 not-A어도’와 같이 첨가 초점사에 의해 A와 not-A가 연결되어 양보절을 구성하는 것들을 첨가 초점사 방식에 속하지 않고 이접 연결사에 의해 A와 not-A가 연결되어 양보절을 구성하는 것들과 같은 방식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제3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A어도 not-A어도’와 같은 것들은 첨가 초점사 방식의 한 종류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접 연결사가 쓰인 양보문에서도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가 사실로 해석되는 사례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조건적 양보 표지가 사실성에 대해 중립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A와 not-A가 이접 연결사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양보문은 총망라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렇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A와 not-A가 이접 연결사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양보절이 모든 사태를 망라한다면 그러한 양보절을 가지는 양보문은 불특정적인 지시체를 가지는 기대를 부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러한 양보문이 불특정적인 지시체를 가지는 기대를 부정할 수 없음을 보았다. 불특정적인 지시체가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환경이 동일한 기대를 동일한 양보문으로 부정할 수 있다는 점은 총망라성이 A와 not-A를 언어화하는 양보의 필수적인 자질이 아니라는 주장의 개연성을 높여준다. 그런데 A와 not-A가 이접 연결사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양보문이 총망라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해석은 척도상의 끝값을 요소로 하는 기대를 부정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보았다.

5. 자유 선택사 양보

제5장에서는 자유 선택사 방책에 의한 양보를 알아볼 것이다. 자유 선택사 방책에 의한 양보의 두 가지 종류를 언급하고, 한국어에서 자유 선택사 방책에 의한 양보를 담당하는 표현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한다. 자유 선택사가 쓰인 양보문은 첨가 초점사나 이접 연결사가 쓰인 양보문과는 달리 서법에 의해서만 사실적 양보와 조건적 양보가 구별된다. 또한 자유 선택사 방책에 의한 양보는 첨가 초점사 방책에 의한 양보나 이접 방책에 의한 양보와는 달리 반드시 총망라성을 가진다.

5.1. 자유 선택사에 의해 형성되는 양보 표지

자유 선택사가 쓰인 양보문은 어떤 경우에든, 주절이 지시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König 1986: 231, König & Auwera 1988: 147, Xrakovskij 2012: 12).

- (83) Whatever I say, he doesn't listen to me. (König & Auwera 1988: 147)

(83)의 자유 선택사 'whatever'는 말하는 내용 중에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 선택의 의미로부터 (83)은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와 무관하게 그가 화자의 말을 듣지 않음을 나타낸다.

자유 선택사 양보는 반복적 구문(iterative constructions)과 단일사태 구문(non-iterative constructions)으로 나눌 수 있다(Xrakovskij 2012: 63-66). 반복적 구문에서는 사태의 참여자, 사태가 발생한 시간, 사태가 발생한 공간이 자유 선택의 대상이 된다.

(84) 가. 무슨 일을 맡겨도 철수는 항상 훌륭하게 해낸다.
 나. 영화는 언제 봐도 반갑다.
 다. 철수는 어디를 가도 환영받을 것이다.

(84가)에서는 사태의 참여자인 ‘맡기는 일’이 자유 선택의 대상이다. (84나)에서는 사태가 발생하는 시간이 자유 선택의 대상이다. (84다)에서는 사태가 발생하는 공간이 자유 선택의 대상이다.

단일사태 구문에서는 사태의 회수, 지속 시간, 강도 같은 것들이 자유 선택의 대상이 되어 그것들이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했음을 나타낸다.

(85) 아무리 물어봐도 영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85)에서는 ‘아무리’에 의해 물어보는 회수가 자유 선택의 대상이 되어 그것이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어에서는 조건적 양보를 나타내는 ‘도’ 결합형 연결어미나 이접 연결사가 자유 선택사의 형성에 참여한다.

(86) 가. 무엇을 먹어도 입맛이 없구나.
 나. 그 분식점은 언제 가더라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뎌내라.
 라. 얼마를 준다고 한들 이 그림은 팔지 않겠습니다.
 마. 철수가 무엇을 제안하든지 영화는 그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86가)에서는 비한정대명사 ‘무엇’과 ‘-어도’에 의해 자유 선택사가 형성되어 있다. (86나)에서는 비한정대명사 ‘언제’와 ‘-더라도’에 의해 자유 선택사가 형성되고 있고, (86다)에서는 ‘어떤’과 ‘-을지라도’에 의해 자유 선택사가 형성되어 있다. ‘도’ 결합형 연결어미 외에도 조건적 양보를 나타낼 수 있는 연결어미가 자유 선택사의 형성에 참여하기도 한다. 가령 (86라)에서는 ‘-은들’이 자유 선택사 형성에 참여하고 있다. (86마)와 같이 이접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도 자유 선택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

조건적 양보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는 ‘아무리’와 함께 단일사태 구문을 표현하는 자유 선택사의 형성에도 참여한다.

- (87) 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를 았아.
나. 설거지하는 것이 아무리 귀찮더라도 이렇게 쌓아두면 안 돼.
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지라도 변수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라. 아무리 생각이 깊은들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있겠니.

(87가-다)에서는 ‘아무리’와 ‘-어도’, ‘-더라도’, ‘-을지라도’에 의해 형성된 자유 선택사가 쓰여서 단일사태 구문이 표현되고 있다. 반복적 구문에서 처럼 ‘도’ 결합형 연결어미가 아니더라도 조건적 양보를 나타낼 수 있는 연결어미가 쓰이기도 한다. 가령 (87라)에서는 ‘-은들’이 쓰였다.

‘도’ 결합형 연결어미들 중에서 사실적 양보만을 나타내는 ‘-은데도’, ‘-음에도’는 자유 선택사의 형성에 참여하지 않는다. ‘-고도’의 경우 소수의 말뭉치 용례가 확인된다.

- (88) 가. 무엇을 가지고도 그 벌어진 틈을 좁힐 수 없는 사이라는 걸 누구보다 금순네 자신이 매번 섬찟하게 깨닫곤 해왔던 것이다. (세종)
나. 지금부터 나는 무엇을 가지고도 억울해 하지 않으리라. (세종)

(88)에서는 비한정대명사 ‘무엇’과 ‘-고도’가 자유 선택사를 형성하고 있다. 드물게 이와 같은 용례가 확인된다.

자유 선택사의 형성에 비한정대명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한국어에서는 비한정대명사 없이 중첩에 의해서 단일사태 구문이 표현되기도 한다.

- (89) 행군은 걸어도 걸어도 끝나지 았았다.

(89)에서는 ‘-어도’의 중첩에 의해 걷는 시간이 일반적인 수준 이상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중첩에 의해 양보를 표현하는 문장은 ‘아무리’에 의해 회수, 지속 시간, 강도가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했음을 나타내

는 단일사태 구문과 그 의미가 유사하다.

중첩에 의해 양보를 표현하는 문장이 단일사태 구문과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현상은 다른 언어에서도 확인된다.

(90) 일본어

Denwa o kaketemo kaketemo
telephone ACC CALL.TEMO CALL.TEMO
tuuzimasen. <from a letter>
connect-NEG
'I never reach him no matter how often I call him.' (Fujii 1994: 200)²¹⁾

(91) 라틴어

Quid-quiv id est, timeo Danaos et dona
what-what that is I:fear Danaanseven bring
ferentes.
gifts
'Wherever that is, I fear the Danaans even if they bring gifts.'
(Haspelmath & König 1998: 615)

(92) 시칠리어

Unni vaju vaju, tutti mi salutunu.
where I:go I:go all me they:greet
'Wherever I go, everyone greets me.' (Haspelmath & König 1998: 615)

(90)에서와 같이 일본어는 한국어와 동일하게 'V + 연결어미' 중첩에 의해 단일사태 구문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91)에서처럼 라틴어에서는 의문 대명사가 중첩되어 단일사태 구문의 의미를 나타낸다. 시칠리어에

21) 원문의 주석의 띄어쓰기를 일부 수정하였다. 'CALL TEMO'을 붙여 쓰고 '.'를 써서 둘의 경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서는 (92)에서처럼 동사가 중첩된다. 이러한 중첩에 의한 양보는 Haspelmath & König(1998: 615)에서 자유 선택사 정책에 의한 양보(보편 양화의 조건적 양보)로 분류되고 있다. 본고에서도 한국어의 ‘-어도’ 중첩에 의한 양보는 자유 선택사 정책에 의한 양보로 분류하고자 한다.

비한정대명사나 중첩 외에도 어림수가 쓰여서 단일사태 구문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93) 가. 수억을 주겠다고 하시더라도 이 작품은 팔지 않겠습니다.

나. 아무리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시더라도 이 작품은 팔지 않겠습니다.

(93가)에서는 ‘수억’이라는 어림수가 쓰이고 있는데 물건의 지불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수준의 금액은 아니다. 이러한 어림수가 쓰인 (93가)는 ‘아무리’가 쓰인 (93나)와 그 의미가 유사하다.

5.2. 자유 선택사 양보의 의미

자유 선택사 정책에 의한 양보의 경우 다른 정책에 의한 양보와는 달리 서법에 의해 사실적 양보와 조건적 양보가 결정된다. 자유 선택사 정책에 의한 양보는 총망라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첨가 초점사 정책에 의한 양보나 이접 정책에 의한 양보와는 구별된다. 첨가 초점사가 쓰인 양보문과 자유 선택사가 쓰인 양보문이 의미적으로 거의 유사한 경우가 있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첨가 초점사 정책에 의한 양보와 자유 선택사 정책에 의한 양보는 구별된다.

5.2.1. 자유 선택 양보문의 사실성

많은 언어에서 자유 선택사가 쓰인 양보문의 사실성은 서법에 의해 결정된다(König & Auwera 1998: 152). 한국어에서도 반복적 구문의 사실성은 서법에 의해서 구별된다.

- (94) 가. 어제는 어디를 가도 사람이 많을 것이다.
가'. 어제는 어디를 가도 사람이 많았다.
나. 철수는 무엇을 해 주더라도 잘 먹었을 것이다.
나'. 철수는 무엇을 해 주더라도 잘 먹었다.
다. 영희는 무슨 일을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 영희는 무슨 일을 할지라도 최선을 다했다.

‘-어도’가 쓰인 반복적 구문인 (94가)과 (94가)'은 오직 서법의 차이에 의해서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의 사실성이 표현되고 있다. 즉 (94가)는 실제로 어딘가에 갔는지에 대해서 전달하는 바가 없는 반면 (94가)'은 실제로 여러 장소에 간 것으로 해석된다. ‘-더라도’가 쓰인 (94나)와 (94나)'도 서법에 의해서 사실성이 구별되며 ‘-을지라도’가 쓰인 (94다)와 (94다)' 또한 그러하다.

반복적 구문의 사실성뿐만 아니라 단일사태 구문의 사실성도 서법에 의해 구별된다.

- (95) 가. 아무리 힘든 일이어도 잘 해냈을 것이다.
가'. 아무리 힘든 일이어도 잘 해냈다.
나. 철수가 아무리 애원하더라도 영희는 철수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나'. 철수가 아무리 애원하더라도 영희는 철수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다. 영수가 딸을 아무리 예뻐할지라도 혼낼 때는 혼냈을 것이다.
다'. 영수가 딸을 아무리 예뻐할지라도 혼낼 때는 혼냈다.
라. 그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거야.

라'. 그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었다.

(95가), (95나), (95다)에서와 같이 단일사태 구문은 조건적 양보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95가)', (95나)', (95다)'에서와 같이 사실적 양보를 나타낼 수도 있다. (95라)와 (95라)'에서와 같이 '-어도'의 중첩 또한 조건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를 나타낼 수 있다. (95)에서와 같이 단일사태 구문 또한 서법에 의해서 사실성이 구별된다.

5.2.2. 자유 선택 양보의 의미 점검

반복적 구문과 범칭적 사태를 나타내는 문장의 차이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96) 가. 영희는 누구를 만나도 먼저 인사한다.

나. 영희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먼저 인사한다.

다. (기대) 모든 경우를 살펴보면 영희가 먼저 인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96가)는 반복적 구문이다. (96나)는 범칭적 사태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96가)와 (96나)에는 의미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범칭적 사태와는 달리 반복적 구문은 모든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가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수준의 기대'를 가진다(Xrakovskij 2012: 66). 즉 (96나)와는 달리 (96가)는 (96다)와 같은 기대를 부정한다.

단일사태 구문은 일반적인 수준의 초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첨가 초점사 정책에 의한 양보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질 때도 있다. 그러나 둘은 구별된다.

(97) 가. 아무리 네 딸이 예쁘더라도 오냐오냐 키워서는 안 된다.

나. 네 딸이 예쁘더라도 오냐오냐 키워서는 안 된다.

(98) 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철수는 받지 않았다.

나. 전화를 걸어도 철수는 받지 않았다.

(97가)는 ‘아무리’가 쓰인 단일사태 구문이고, (97나)는 첨가 초점사 방책에 의해 양보를 표현하는데 (97가)와 (97나) 사이에는 의미의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98가)와 (98나)에는 의미의 차이가 있다. 단일사태 구문인 (98가)는 2회 이상 전화를 건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첨가 초점사 방책에 의해 양보를 표현하는 (98나)는 회수에 대해 전달하는 바가 없다.

5.3. 요약

제5장에서는 자유 선택사 방책에 의한 양보를 살펴보았다. 자유 선택사 방책에 의한 양보에는 반복적 구문과 단일사태 구문 두 종류가 있다. 반복적 구문은 참여자, 시간, 공간이 자유 선택의 대상이 되어 양보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단일사태 구문은 하나의 사태의 회수, 지속 시간, 강도가 자유 선택이 되는 것을 말한다. 많은 언어에서 오직 서법에 의해 자유 선택사가 쓰인 양보문의 사실성이 결정된다. 한국어의 자유 선택사가 쓰인 양보문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반복적 구문이 부정하는 기대는 특수하다. 반복적 구문은 ‘모든 경우를 살펴보면 예외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부정한다. 단일사태 구문은 때때로 첨가 초점사 방책에 의한 양보와 의미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회수가 자유 선택의 대상이 되는 경우 둘이 구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6. 결론

주요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양보는 비관여성을 가지는 기대 부정이다. 양보의 핵심 의미인 비관여성은 기대가 가지는 ‘오직’의 의미를 부정할 때 생긴다. 이는 ‘오직’의 의미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기대를 부정하는 문장들이 비관여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양보는 사태가 사실임을 나타내는 사실적 양보와 사태가 사실인지에 대해 중립적인 조건적 양보로 나눌 수 있다. 조건적 양보 표지들이 쓰인 문장에서 사태가 사실적으로 해석되는 현상이 있으나 이는 조건적 양보가 사실성에 대해 중립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범언어적으로 빈번하다.

조건적 양보는 총망라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었다. 즉 양보절은 가능한 모든 사태를 망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첨가 초점사가 쓰인 조건적 양보문 중에서 총망라성을 가지지 않는 문장들이 확인된다.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그간 첨가 초점사 정책에 의한 조건적 양보가 척도성과 총망라성을 필수적으로 가진다고 파악되어왔던 것과 상충된다. 양보가 ‘오직’의 의미를 부정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한국어에서 ‘도’가 쓰인 비척도적인 조건적 양보문이 첨가 초점사 정책에 의한 조건적 양보의 기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척도적인 첨가 초점사가 쓰인 조건적 양보에서 초점은 언제나 끝값임을 주장하였다. 초점이 끝값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있으나 맥락적인 끝값의 개념을 통해 이러한 경우에도 초점은 끝값으로 볼 수 있다.

이접 정책에 의한 양보에서도 총망라성은 필수적인 자질이 아니다. 이접 연결사가 쓰인 조건적 양보문이 부정하는 기대가 척도상의 끝점인 사태를 요소로 한다면, 이러한 기대를 부정하는 과정에서 양보문은 척도 함축을 갖게 된다. 그리고 척도 함축에 의해 총망라성 또한 갖게 된다. 기대를 구성하는 사태가 척도상의 존재자가 아니라면 이접 연결사가 쓰인 조건적 양보문은 총망라성을 갖지 않는다.

자유 선택사 방책에 의한 양보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반복적 구문이고 다른 하나는 단일사태 구문이다. 반복적 구문에서는 참여자, 시간, 공간이 자유 선택의 대상이 되고 단일사태 구문에서는 어떤 사태의 회수, 지속 시간, 강도가 자유 선택의 대상이 된다. 한국어는 비한정대명사와 ‘도’ 결합형 연결어미 혹은 이접 연결사가 자유 선택사를 형성한다. 사실적 양보를 나타내는 ‘도’ 결합형 연결어미는 자유 선택사를 형성하지 못한다. 많은 언어에서 오직 서법에 의해 자유 선택사가 쓰인 양보문의 양보절이 지시하는 사태의 사실성이 결정된다. 한국어의 자유 선택사가 쓰인 양보문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직접부정과 간접부정 외에 제한적(restrictive) 양보를 구별하는 논의가 있다. 제한적 양보는 양보절이 주절이 나타내는 내용을 일정 수준 제한하는 양보로 정의된다. 가령 제한적 양보를 나타내는 문장 ‘John speaks well, although his stresses are sometimes wrong. (Xrakovskij 2012: 7)’에서는 ‘존의 억양이 때때로 틀림’을 언급함으로써 ‘존이 말을 잘함’을 일정 수준 제한한다. 일부 연구에서 제한적 양보는 기대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주장되었다(König 1988: 148, 2006: 824, Rudolph 1996: 42, Xrakovskij 2012: 7). 그러나 제한적 양보를 직접부정으로 환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Izutsu 2008: 664). 제한적 양보문 중에 일부는 기대를 부정하고 하고 일부는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Mizuno 2007). 제한적 양보와 기대의 관계에 대해 아직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한적 양보에 대한 논의는 후고에서 보충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참 고 문 헌>

- 구재희·장채린(2014), “-아/어도”, “-더라도”, “-고도”, “-(으)ㄴ/는데도”의 의미 변별 및 교수 방안,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93-104
- 구종남(2007), 화용론적 가정과 부정극어, 《한국언어문학》 60, 한국언어문학회, 5-26.
- 김찬화(2008), 연결어미 “-고도”의 의미양상과 통사적 제약, 《중국조선어문》 156,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5-9.
- 문숙영(2009), 《한국어의 시제 범주》, 태학사
- 박승윤(2007), 양보와 조건, 《담화와 인지》 14, 담화인지언어학회, 63-83.
- 박유경(2014), 조건절의 기능과 조건 연결어미의 사용, 《한국언어학회 겨울학술대회지》, 129-137.
- 박재연(2009) 연결어미와 양태 - 이유, 조건, 양보의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30, 한국어 의미학회, 119-141.
- 박재연(2011), 한국어 연결어미 의미 기술의 메타언어 연구, 《국어학》 62, 국어학회, 167-197.
- 박진호(2012), 의미지도를 이용한 한국어 어휘요소와 문법요소의 의미 기술, 《국어학》 63, 국어학회, 459-519.
- 박진호(2015),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국어학》 73, 국어학회, 375-435.
- 박진희(2011), 국어 절 접속의 의미관계 유형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낙천(2011), 조사 통합형 접속어미의 특징, 《국제언어문학》 24, 국제언어문학회, 121-141
- 서정섭(1991), 국어 양보문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지연(2004), 대립과 양보 접속어미의 범주화, 《어문학》 84, 어문학회, 75-98.
- 안찬원(2000), 국어 조건관계 연결어미의 의미계층구조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우상민(2008), 국어 양보 표현의 사전 기술 방법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평현(1989), 국어의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동(1977), 대조·양보의 접속어미의 의미연구(I), 《어학연구》 13, 129-137.
- 이은경(1990), 국어 접속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1996), 국어의 연결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환묵(1982), 국어 형성 토씨 - 도, 《한글》 176, 한글학회, 93-122.
- 임동식(2004), 반사실적 조건문에서 나타나는 양보의 의미와 척도상의 함축,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언어정보학회, 1-16.
- 임동훈(2009), 한국어 병렬문의 문법적 위상, 《국어학》 56, 국어학회, 87-130.
- 임동훈(2015), 보조사의 의미론, 《국어학》 73, 국어학회, 335-373.
- 임지룡(1982), 상대성 접속어미 연구, 《동양문화연구》 9, 경북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189-227.
- 전영철(2013), 《한국어 명사구의 의미론 한정성/특정성, 총칭성, 복수성》,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채연강(1985), 현대한국어 연결어미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규련(2005), 《국어의 초점사 현상》, 한국문화사.
- 최은실(2016), 양보 연결어미 연구 - 주변적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재희(1989), 국어 접속문의 구성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함병호(2013), 보조사 '도' 통합형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60, 한국어문학연구학회, 107-147.
- Akatsuka, N.(1986), Conditionals are discourse-bound, *On conditiona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333-351.
- Azar, M.(1997), Concession relations as argumentation, *Text* 17.3, 301-316.
- Bisang, W.(1998), Adverbiality: The view from the Far East,

- Adverbial Constructions in the Languages of Europe*, 641–812.
- Blakemore, D.(1989), Denial and contrast: A relevance theoretic analysis of but, *Linguistics and Philosophy* 12, 15 - 37.
- Comrie, B.(1986), Conditionals: a typology, *On conditiona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77–99.
- Crevels, M.(1998), Concession in Spanish, *Functional grammar and verbal interaction*, John Benjamins, 129–148.
- Crevels, M.(2000), Concessives on different semantic levels: A typological perspective, *Cause-Condition-Concession-Contrast. Cognitive and Discourse Perspectives*, Mouton de Gruyter,, 313 - 339.
- Dancygier, B.(1988), Conditionals and Concessives, *Papers and studies in contrastive linguistics* 24, 111–121.
- Dixon, R. M. W. & A. Y. Aikhenvald(2009), *The Semantics of Clause Linking: A Cross-Linguistic Typology*, Oxford
- Fujii, S. Y.(1994), A family of construction: Japanese TEMO and Other concessive conditionals, *Bekeley Linguistics society* 20, 94–207.
- Göksel, A. & C. Kerslake(2005), *Turkish: A Comprehensive Grammar*, Psychology Press.
- Güntner, S.(2000), From concessive connector to discourse marker: The use of obwohl in everyday German interaction, *Cause-Condition-Concession-Contrast. Cognitive and Discourse Perspectives*, Mouton de Gruyter, 439–468.
- Haspelmath, M. & E. König.(1998), Concessive conditionals in the languages of Europe, *Adverbial constructions in the languages of Europe*, Mouton de Gruyter, 563–640.
- Haspelmath, M.(1993), *A grammar of Lezgian*, Walter de Gruyter.
- Iten, C.(1998), The meaning of although: a Relevance Theoretic account, *ULC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0. 81–108
- Izutsu, M. N.(2008), Contrast, concessive, and corrective: Toward a

- comprehensive study of opposition relations, *Journal of Pragmatics* 40, 646-675.
- König, E. & J. van der Auwera(1988), Clause intergration in German and Dutch conditionals, concessive conditionals, and concessives, *Clause combining in Grammar and Discourse*, John Benjamins, 71-99.
- König, E.(1985), Where do concessives come from? on the development of concessive connectives, *Historical Semantics – Historical Word-Formation*, Walter de Gruyter.
- König, E.(1986), Conditionals, Concessive Conditionals and Concessives: Areas of contrast, *On conditiona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29-246.
- König, E.(1988), Concessive connectives and concessive sentences: cross-linguistic regularities and pragmatic principles, *Explaining language universals*, Oxford, 145-166.
- König, E.(1991a), Concessive relations as the dual of causal relations. *Semantic universals and universal semantics*, Mounton de Gruter, 190-209.
- König, E.(1991b), *The Meaning of Focus Particles: A Comparative Perspective*, Routledge.
- König, E. & P. Siemund(2000), Causal and concessive clauses: Formal and semantic relations, *Cause-Condition-Concession-Contrast. Cognitive and Discourse Perspectives*, Mounton de Gruter, 341-360.
- König, E.(2006), Concessive Clauses,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Second edition)*, Elsevier, 820-824.
- Lang, E.(2000), Adversative connectors on distinct levels of discourse: A re-examination of Eve Sweetser's three-level approach, *Cause-Condition-Concession-Contrast. Cognitive and Discourse Perspectives*, Mounton de Gruter, 235-256.
- Latos, A.(2009), Concession in the Space of Contrast,

https://www.academia.edu/16090335/Concession_in_the_space_of_contrast.

- Mizuno, Y.(2007), *Although Clauses in English Discourse: A functional Analysis*, Ph, D. Thesis, Hokkaido University
- Noordman, L.G.M.(2001), *On the production of causal-contrastive although-sentences in context*, *Text Representation: Linguistic and psycholinguistic aspects 8*, Benjamins, 153-180
- Rimon, M. & Y. Winter(1994), *Contrast and Implication in Natural language*, *Journal of semantics 11*, 365-406.
- Robaldo, L et al.(2010), *Corpus-based Semantics of Concession: Where do Expectations Come from? In LREC*.
- Rudolph, E.(1996), *Contrast Adversative and Concessive Relation and their expression in English, German, Spanish, Portuguese on Sentences and Text Level*, Walter de Gruyer.
- Sarlin, M.(2014), *Romanian Grammar*, BoD.
- Sawada, O.(2003) *The Two-dimensional Scale of the Concessive Conditional Construction: The Case of English Even if Construction*, *Proceedings of the 8th conference of Pan-Pacific Association of Applied Linguistics*. 2003. 424-433
- Sidiropoulou, M.(1992), *On the connective although*, *Journal of Pragmatics 17*, 201-211.
- Sweetser, E.(1991),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Metaphorical and Cultural Aspects of Semantic Struc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ladimir, M. & V. Tatiana(2012), *Concessive constructions in Modern Japanese*, *Typology of concessive constructions*, LINCOM, 432-461.
- Xrakovskij, V.(2012), *Concessive constructions: meaning, syntax, and typology*, *Typology of concessive constructions*, LINCOM, 3-79.

Abstract

Expression Strategies and
Meaning of Concessives in Korean

Lee, Soon Wook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is an attempt to describe the meaning of concessives in Korean focusing on the three strategies of concessive expressions. The core meaning of concessives is ‘irrelevance’. It gets shown on the surface by denying expectation. Therefore when someone describes the meaning of concessives, it is required to consider the expectation which is denied by concessives. This thesis tries to determine the representation of expectation and the meaning of expectation denied by concessives.

Chapter 2 assures that the expectation is represented as <If A, B> form. A general rule including ‘normally’ is not the expectation itself but the one that can be a premise of expectation. Above-mentioned form means A is a sufficient condition for B and B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A. The assertion A is a sufficient condition for B means 'If A is true, B MUST be true'. The assertion B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A means 'ONLY if B is true, A is true'. So we can see that concessives deny 'MUST' and 'ONLY'. So the denied meanings by concessives are 'MUST' and 'ONLY'.

Chapter 2 covers factuality of concessive clauses and expression strategy of concessives. Concessives falls into two categories: 'factual concessives' and 'concessive conditionals'. There are three strategies to express concessive conditionals cross-linguistically. Additive Focus Particle like 'even', Disjunction like 'or', Free-choice Quantifier like 'whatever' can be mainly used for expressing conditional concessives but factual concessives are expressed by them too.

Chapter 3 includes 'Additive Focus Particle Concessives'. It is regarded as concessives with additive focus particle that have scalar implicature but there are additive focus particle concessives without scalar implicature in Korean. This thesis argues that basic one is the additive focus particle concessives without scalar implicature and this thesis proves mental extreme value.

Chapter 4 includes 'Disjunction Concessive'. This chapter classifies 'A어도 not-A어도' clauses as additive concessive clauses. This classification is based on unnecessariness of scalar implicature in additive concessive. It is known that disjunction concessives exhaust all the situation and then the situations referred by main clauses are entailed. This thesis argues that disjunction concessives don't exhaust all the situation and the meaning of exhaustedness came from denying the scalar of expectation.

In chapter 5, 'Free-Choice Concessives' are observed. As stated by Xrakovskij(2012), there are two kinds of free-choice concessives. One is iterative constructions and the other is non-iterative constructions. According to a cross-linguistical observation, free-choice concessives can have factuality. In Korean, there are free-choice concessives that

have factuality.

keywords : concessive, irrelevance, concessive conditional,
conditional concession, scalar,

Student Number : Lee, Soon Wook